

◆ KINU 연구총서 14-01

#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 김병로 · 박병광

◆ KINU 연구총서 14-01

#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 김병로 · 박병광

##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5 (팩시밀리) 02-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BN 978-89-8479-769-7 93340

가 격 ₩7,5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요약 .....	vii
<b>I. 서론 .....</b>	<b>1</b>
1.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6
<b>II.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 .....</b>	<b>11</b>
1. 개황과 추이 .....	13
2. 교류목적과 교류주체 .....	20
<b>III. 군사 분야 인적 교류 .....</b>	<b>41</b>
1. 개황과 추이 .....	43
2. 교류목적과 주체 .....	47
<b>IV. 경제 분야 인적 교류 .....</b>	<b>59</b>
1. 개황과 추이 .....	61
2. 네트워크 .....	78
<b>V. 사회문화 분야 인적 교류 .....</b>	<b>91</b>
1. 개황과 추이 .....	93
2. 네트워크 .....	120
<b>VI. 결론 .....</b>	<b>139</b>

참고문헌 .....	1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5

# 표·그림 목 차

<표 II-1>	북·중 정상 회담 주요 내용 및 합의 사항 .....	36
<표 II-2>	2003~2014년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	37
<표 III-1>	2003~2014년 북·중 간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	55
<표 IV-1>	최근 5년 북·중 무역 동향 .....	61
<표 IV-2>	북한의 대외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62
<표 IV-3>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 추이 .....	62
<표 IV-4>	중국 입국자 수 .....	63
<표 IV-5>	연도별 북·중 간 경제 분야 인적 교류 .....	67
<표 V-1>	북·중 문화 교류 조직 네트워크 .....	132
<그림 II-1>	2003~2014년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 빈도 추이 .....	16
<그림 III-1>	2003~2014년 북·중 간 군사 분야 인적 교류 빈도 추이 .....	45
<그림 IV-1>	연도별 북·중 간 경제 교류 빈도 .....	65
<그림 V-1>	연도별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 추이 .....	115
<그림 V-2>	북·중 간 월별 사회문화 교류 패턴 .....	118

## 요 약

북·중 간의 전체적인 인적 교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 간에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데는 통상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인적 교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요즘 북·중 간 정치적 관계는 매우 불편하고, 그래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인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런가, 교류 분야를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4가지로 대별한다면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의문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기본은 『로동신문』이다. 『로동신문』은 보통 4면이나 5면에 국내외 인사들의 출입국 동향, 국제적 교류사항을 보도한다. 워낙 폐쇄적인 국가여서 국제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출입국 사항은 빠짐없이 보도된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중 간 인적 교류를 전수 조사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인적 교류 횟수는 총 466회이다. 이 중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횟수는 189회이며, 중국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77회이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볼 때, 중국이 북한보다 약 90회 정도 더 많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중관계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와 김정은-시진핑 시대를 비교하면 전자 시기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인적 교류는 428회였다. 연평균 47.6회이다. 그러나 후자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교류는 38회에 그쳐



연평균 15회 정도이다. 세간의 평가처럼 급감했고 이로써 북·중 간의 인적 교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13년 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북·중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주된 이유이며, 그 결과 2014년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정치외교 분야에서 북·중 간 이루어진 인적 교류의 횟수가 466회에 달한 반면, 군사 분야의 교류는 총 65회에 그쳤다. 군사 분야의 인적 교류는 2009년(7회)과 2010년(13회)을 제외하면 대체로 4~5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과 천안함 폭침(2010.3), 연평도 포격(2010.11)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대응하여 북·중관계의 강화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연도는 교류 횟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북·중 간 친선우호관계를 의례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 횟수가 대략 4~5회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와 김정은-시진핑 시기를 비교하면 북·중 간 군사 분야의 교류 역시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자 시기 양국 간의 군사 분야 교류 횟수는 연평균 6회였지만, 후자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2014년 현재까지 군사 분야의 교류는 한 차례도 없다.

경제 분야에서의 북·중 간 인적 교류는 북한경제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북·중 간 경제활동을 위한 상호 방문의 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 간 교류의 성격을 띤 공적 성격의 교류는 그렇지 않다. 정치외교 분야나 사회문화에 비해 교류가 빈번하지도 않고 주목할 만한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공적 성격의 교류 횟수는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9회이다. 북한 쪽에서 중국으로 간 것이 65회이고, 중국 측에서 북한을 찾은 것이 84회이다.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의 교류 횟수는 연평균 13.4회이고 김정은-시진핑 시기는 11.2회이다. 후자 시기에서 감소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있는데 그것은 2013년부터 경제 관련 정부대표단의 교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매년 북·중 간에는 몇 차례 정부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데 2013년과 2014년 상반기까지 그런 방문이 전혀 없다. 이는 불편해진 북·중관계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고 최근 북·중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분야 인적 교류는 지난 10년간 양국 간 정치적 사건과 외교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2003년 이후 증가하던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북핵문제와 제1차 핵실험 정국 조성으로 2005~2006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한 관여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하반기(7~12월)에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왕래가 유례없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사건에 영향을 받아 교류 횟수도 68회로 대폭 감소하였고 장성택 사건이 가시화된 시점인 10~12월에는 인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 2014년에 들어서도 양국 간 교류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중요한 국가 기념일에도 사회문화 교류가 거의 없어서 기존의 북·중 사회문화 네트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양국의 교류를 큰 방향에서 주도하는 네트워크 행위자는 노동당과 공산당의 간부나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관료

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의 관료들이 각 분야의 교류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에 따라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된다. 국가 차원에서 설립한 민간단체와 정부 산하기관들의 주도 하에 조·중친선협회나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같은 친선조직이 각 분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북·중 간 인적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간에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해온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북·중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회자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경색이 정상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과거의 정치군사 중심의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적어도 인적 교류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 특히 김정은-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모든 분야의 인적 교류에서 보이는 양국의 간극은 분명하고 이것이 향후 더 농후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주제어:** 북·중관계, 인적 교류, 인적 네트워크, 상호 방문

## Abstract

# Study on Human Exchange and Network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Lee, Kyo-Duk et al.*

The overall human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increased rapidly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exchanges of persons and material resources are normally affected by political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 spite of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ersonal exchanges, the political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uncomfortable recently, which makes the exchanges of persons in the high positions, more qualitatively important, decrease.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questions whether this pattern operates in real, since when it has appeared, and whether these patterns appear equally in political diplomacy, military, economy and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

The main data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study is “Rodong Sinmun”. “Rodong Sinmun” usually reports entries and departure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gures on page 4 or 5. As the international exchanges are not as frequent as an open society, the news paper covers almost every case of entry and departure. This study shows the result of the human exchanges of North Korea and China based on all the data reported in Rodong sinmun from 2003 to 2014.

**Keyword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uman Exchange, Human Network, Exchange of Visit





# I. 서론



## 1. 연구목적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즐기차게 전진하여 온 조중친선관계는 오늘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훌륭히 계승발전되고 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의 사회주의위업을 고무추동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이며 공통의 재부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 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일 -

중조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정성껏 키워주시었으며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친선입니다.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입니다.

우리는 조선측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진취적으로 개척해나감에 시대를 더불어 전진하고 여러 분야에서 쌍방사이의 친선교류와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켜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후진타오 -

위의 두 글은 2011년 7월 10일에 북한과 중국이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지 50주년을 기념하여 주고받은 축전 속의 내용이다.<sup>1</sup> 기념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양국관계는 이른바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굳건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 『로동신문』, 2011년 7월 11일.



2087호, 2094호에 찬성했고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제재의 엄격한 집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하달했으며 2014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취임 이후 평양에 가지 않고 서울을 방문했다. 더욱이 조·중 상호원조조약 체결 53주년이 되는 7월 11일에는 전례 없이 양국이 기념 연회를 열지 않았고 이에 관한 양국의 언론보도도 일체 없었다.<sup>2</sup> 7월 17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언론성명 발표에 중국이 동참하자, 북한은 “일부 주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하여 미국의 구린내 나는 꿈무니를 따르면서 … 부질없이 원심을 쓰고 있다”라며 중국을 ‘주대 없는 나라들’로 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sup>3</sup>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시진핑 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양국 간에 고위급 인사의 교류도 거의 없다. 따라서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많다.<sup>4</sup>

인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양국에서의 지도부 교체를 포함한 여러 변화에 의한 지속적 현상일지는 향후 북·중관계 전망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모든 영역의 국가 간 활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가 간 인적 교류는 국가관계를 반영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다원적 자유민주체제가 아니고 당-국가체제인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양국 간

2. 1961년 7월 11일에 조·중 상호원조조약이 서명된 이후 매년 7월 11일이면 북한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관해 언론 매체들은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북·중관계가 불편해진 속에서도 기념행사는 진행되었다. 『로동신문』은 참석자들이 북·중 간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2013년 7월 11일.

3.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14년 7월 21일.

4. 예를 들면 정덕구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서울: 중앙북스, 2013).

인적 교류, 특히 고위 인사의 교류는 쌍방관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시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규명하려는 것은 북·중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면 이것이 양국 간 인적 교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만약 반영되고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의문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의문, 즉 북한과 중국의 사람 사이에, 또는 조직 사이에 특정의 연계가 존재하느냐도 본 연구가 대답을 찾고자 하는 주안점이다.

북·중관계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양국의 경제관계 등 물질적 교류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인적 교류를 다룬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로 남아있다.<sup>5</sup> 본 연구는 다소나마 그 공백을 메워준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 입안이나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변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북·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와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예측력을 가질 수 있는 한 방편이 양국 간 인적 교류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인적 왕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부 사회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에 관한 이해는 북한사회 변화 예측에도 유용성을 지닌다.

---

<sup>5</sup> 인적 교류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으로서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가 유일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일 교류 40년을 맞아 경제·인적 교류 연표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될 정도이다. 加藤隆三木 편, 『日中經濟·人的交流年表』(東京: 創英社, 2012).

I
II
III
IV
V
VI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이후 60여 년에 걸친 북·중 간 인적 교류 전체를 연구하기는 어렵다. 설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양국에서의 정치적 변화와 인적 교류의 상관성을 조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상 것처럼 긴 기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시기로 보면 본 연구의 범위는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이다. 이 시기로 한정하는 이유는 양국관계의 성격이 특수성에서 점차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시기라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안 양국에서 세대교체를 동반한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있었다. 2003년에 중국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대가 개막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정일 정권 제2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권력엘리트층의 재편이 있었고 2013년에 중국에서도 주석이 시진핑으로 교체되면서 지도층의 광범위한 세대교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런 최고지도자 및 세대교체가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와 김정은-시진핑 시기에서의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를 비교함으로써 인적 교류에서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시기 동안을 비교해 보면 인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예측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정권 교체가 인적 교류에 미친 영향 여부에 덧붙여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이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정치·군사적 이슈가 있었던 해, 예를 들면

2006년, 2009년, 2013년의 인적 교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슈 발생과 인적 교류 간에 상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로동신문』이다. 『로동신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일 6면으로 발행되는데 세계 각국과의 교류는 보통 4면이나 5면에 보도된다. 모든 교류 사항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한 출입국 사항은 빠짐없이 보도된다. 워낙 폐쇄적인 국가여서 국제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중 간 인적 교류의 전수 조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중앙년감』 등 북한 언론매체와 중국 측 보도 내용, 통일부 발간 『주간북한동향』 등의 관련 1차 문헌과 중국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보완했다.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기본으로 한 이 자료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네 분야로 세분된다. 네 분야로 나눈 것은 각 분야의 교류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치외교와 군사 분야는 고위급(high level) 교류가 주축일 것이나,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는 고위급 외 일반인(low level) 교류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치외교나 군사 분야는 공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반면 사회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런 성격이 약할 것이다. 분야별로 상정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실제에서 어떤 양상을 빚어내는지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류 가운데에는 애매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성격의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정치외교 분야로 분류하거나 교류의 중심적 성격을 감안하여 특정의 한 분야로 분류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인민무력부에서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여 마련한 연회에는 북한 측에서 최

I
II
III
IV
V
VI

고인민회의, 조·중친선협회, 인민무력부, 외무성, 무역성, 문화성, 대외 문화연락위원회 등의 관료와 군 장성들이 참석하는데, 이 경우는 외교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치외교 분야로 분류했다. 북한과 중국의 중요한 기념행사, 정권수립일이나 창당일 등에서 양국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접촉한 것도 대부분 정치외교 분야에 포함시켰다.

또한 대표단 교환의 경우는 대표단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때가 있어 어느 한 분야의 교류로 특정하기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단장을 맡은 사람의 직책이나 예방한 상대국 인사, 영접한 사람 등을 참고하여 한 분야로 분류했다. 『로동신문』은 북·중 간 대표단이 평양을 떠나거나 평양으로 입국하는 경우 전송하거나 영접한 북한의 관계 부문 직원과 주북 중국대사관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빠짐 없이 보도하고 대표단이 북한과 중국의 어떤 사람들을 예방했는지도 보도한다. 누가 전송하거나 영접했는가, 그리고 누구를 예방했는가를 보면 그 교류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지린성(吉林省) 정부대표단이 평양으로 입국한 경우 이 대표단의 활동이나 목적을 보도하지 않았으나 주북 중국대사관의 경제무역참사가 영접했는데, 이는 이 대표단의 주 활동이 경제관계임을 시사한다.

한편 인적 교류에 반드시 국경을 넘나든 교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중 북한대사관이나 주북 중국대사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북·중 간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는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단 중국이나 북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양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것은 교류이긴 하나 개최 장소가 양국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다. 가령 각각의 국제회의 개최 장소가 윤번제 결과로 베이징(北京)이나 평양이 되어 양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경우는 우연히 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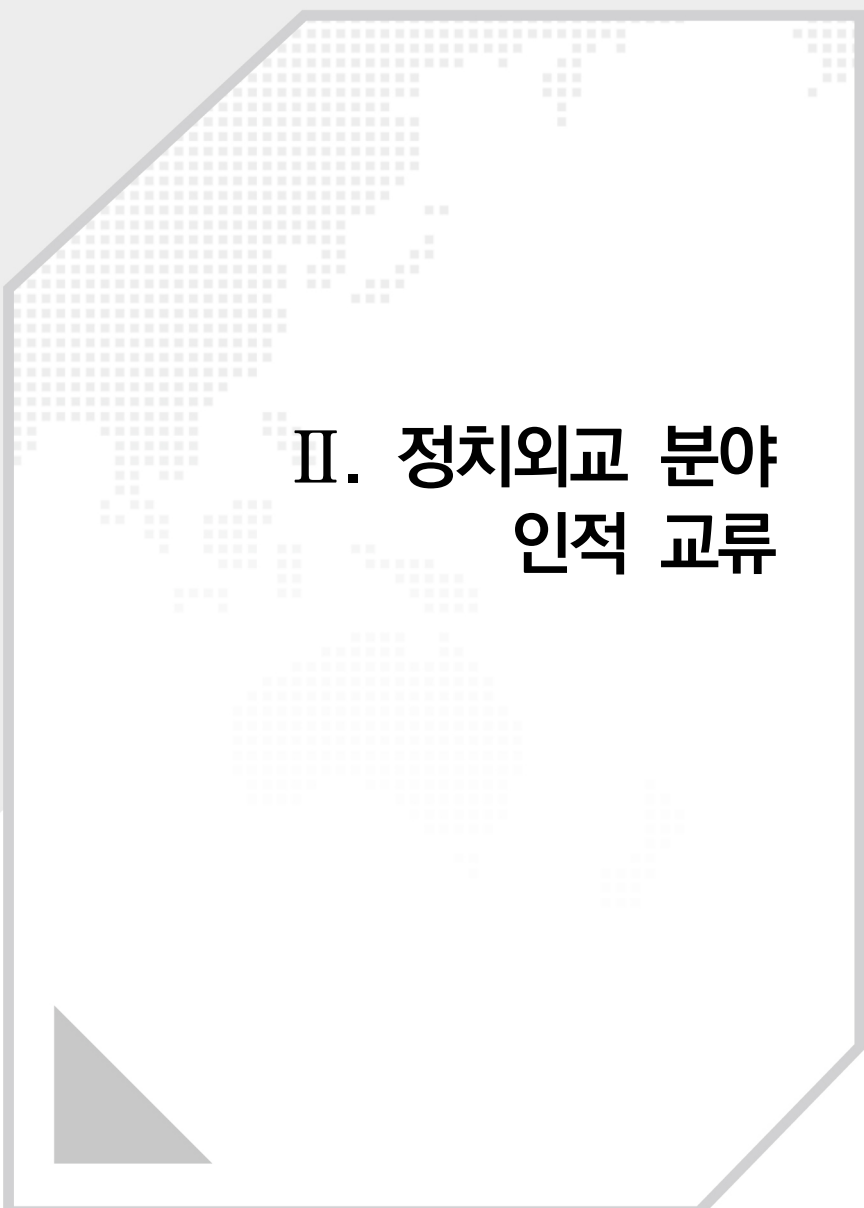
수도에서 북·중 간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식적으로 양국의 수도를 방문하여 이루어진 다른 교류와는 질적 차이가 있다. 가입 국가의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장관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가 대표적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대표단이 조우한 것도 제외했다.

분야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가 가장 많아 이 분야는 문화예술, 교육학술, 체육, 보건의료, 관광 등의 몇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하여 분석했다. 관광은 경제 분야의 인적 교류 성격도 있으나 사회문화 분야로 처리했다. 반면 과학기술 관련 교류는 사회문화적 성격도 있으나, 교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있다고 보아 경제 분야로 취급했다.

한 가지 교류이지만 횡수에서 중복 계산된 것도 있다. 일례로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행사의 하나로 매년 개최되는 사진전시회에 양국의 국방 관련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데, 이는 참석인사로 보면 군사 분야일 수 있고 모임의 성격으로 보면 사회문화 분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류한 자료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처리했다. 전자는 『로동신문』의 보도 전수를 통계 처리한 결과 나타난 빈도수의 변화량이나 증감률을 기반으로 한 비교분석에 사용했고, 후자는 교류 주제나 방법, 교류 양상의 지속성과 변화, 교류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했다.





## Ⅱ.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





# 1. 개황과 추이

## 가. 전반적 추세

북·중 간의 인적 교류는 양국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이다. 특히 정치외교 분야에서 인적 유대관계는 공식적인 양국관계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혈맹관계로 상징되던 냉전기에는 인적 교류가 빈번했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나 탈냉전시기 특히 한·중 수교(1992) 이후 한 동안은 양국 정상 및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없었다. 이는 탈냉전에 따른 양국 간 전략적 목표의 차이 노정과 더불어 전통적 혈맹관계 및 사회주의 국가 간 특수 관계의 해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1999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인적 교류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고위층의 상호 방문 및 실무 차원의 교류도 증가하는 등 협력채널이 복원됨에 따라 북·중관계도 재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문제 촉발에 따른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정치외교 분야의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추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3차례 핵 실험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양국 지도부의 교체 등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정치외교 분야의 인적 교류 역시 지속과 변화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간 특수한 전통관계와 일반 국가 간의 보편적 관계가 공존 내지 혼재하는 양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중관계 역시 갈수록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협력을 반복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 5월 말 현재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의 횟수는 총 466회이다. 이 중 북한이 주도한 인적 교류의 횟수는 총 189회이며, 중국이 주도한 횟수는 총 277회이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볼 때, 중국이 북한보다 약 90회 정도 더 많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중관계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9년(총 81회)과 2010년(총 73회)으로서 이때 북한이 주도한 교류는 총 54회(2009년 25회, 2010년 29회)이며, 중국이 주도한 교류는 총 100회(2009년 56회, 2010년 44회)에 달한다.

2009년과 2010년에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2009년 1월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의 안부를 묻는 중국 측의 방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2009년 1월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내정되고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 대회에서 공식화되면서 북·중 간에 새로운 지도부를 위한 접촉과 관계망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2008년과 2009년은 6자회담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였다. 우선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국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다음으로 2010년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방중과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은 대를 이어 혁명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선대 지도자들의 뜻을 살려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작용하였다.

한편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에 매년 평균 35회 정도의 규칙적인 인적 교류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교류 횟수가 11회, 2014년에는 7회로서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많은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2013년의 총 11회 가운데 북한이 8회를 주도하고 중국은 3회에 그쳤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중단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외교기조, 중국 내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 시진핑 등장을 전후한 시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등 연속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김정은 개인의 대중국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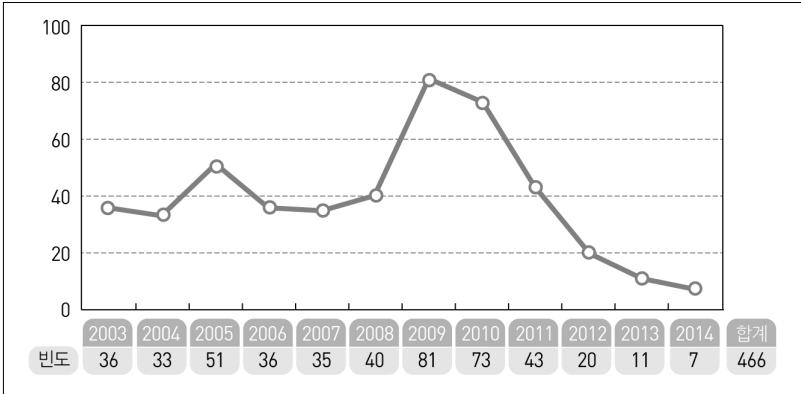
## 나. 시기별 지속성과 변화

2003년 이후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는 양국 간 정치외교 분야의 인적 교류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북·중 간 인적 교류의 연도별 빈도는 <그림 II-1>과 같다.

<sup>6</sup> 박병광, “김정은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2-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14~26 참조.

● 그림 11-1 2003~2014년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 빈도 추이

(단위: 회)



\* 2014년은 5월까지.

구체적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인적 교류 빈도는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03년 36회에서 2005년의 51회로 증가하다가 2008년까지 감소한 후, 다시 2009년 81회로 정점에 이른 뒤, 2014년 최저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적 교류의 1차 증가는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의 적극적 의지와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2006년의 감소는 그 해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2009년의 증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9.5)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책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중국이 체제유지·계승을 원하는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중관계의 전통성과 북한의 지정학적·안보적 가치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상대적 중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2012년 이후의 대폭 감소는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11.12)에

따라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고 중국에서는 G2로서 핵심이익을 강조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등장(12.11)함에 따라 양국의 전략적 목표 간의 간극이 커진 반면 전략적 소통은 없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양국 협력관계의 약화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현재까지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적 행보까지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시작된 김정은-시진핑 시기의 교류와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이 총서기로 등장하자마자 북한은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시진핑의 외교력을 시험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하기 바로 한 달 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의 체면을 여지없이 깎아내렸다. 그 결과 과거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묘사되었던 북·중관계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을 치른 혈맹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일반관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국관계는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첫째, 경제 영역에서 양국 간 교역액 및 원조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교역의 경우 2012년 1분기에는 13억 6,8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4년 1분기에는 12억 7,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숫자도 2013년 1분기 9만 9,100명에서 2014년 1분기에는 9만 1,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하락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무역

I
II
III
IV
V
VI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 계절 요인이 발생하거나 북·중 간 물량과 가격 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혹 통계에서 원유 수출 실적이 없었던 적은 있었지만 8개월 연속 계속되지는 않았다. 중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2만 톤 정도의 원유를 수출하다 2013년에는 57만 톤으로 규모를 늘렸다. 월평균 4만 톤 이상 북한에 수출한 셈이다. 북한이 한 해 소비하는 원유의 80%에 육박하는 50~60만 톤을 중국에 의존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에서 에너지난이 벌어진 징후는 보이지 않아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역시 김정은-시진핑 시기에 발견되는 특이 현상의 하나이다.

둘째, 정치적 영역에서 북·중 간의 특수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7월 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시진핑 주석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관계에서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첫 지도자가 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3년부터 중국 방문을 타진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의 서울 방문은 북·중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정은 등장 이후 북·중 간에는 과거와 다른 구심력 감소의 징후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중관계가 김정은-시진핑 시대에 이처럼 급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최고지도자 중 처음으로 혁명 후세대의 지도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명 1세대인 마오쩌둥(毛澤東)과 2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은 물론이고 3세대인 장쩌민(江澤民)과

4세대인 후진타오에게도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전통적인 혈맹관계의 이웃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 출신의 혁명 후세대로서 전통적인 북·중관계보다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일반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어 인식상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시진핑을 무시한 셈이 되어 북·중관계 변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3월 14일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3월 8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셋째, 북·중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장성택의 숙청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013년 12월 12일 중국의 오랜 대북 창구였던 장성택이 국가전복혐의로 사형에 처해지자 장성택을 대신할 수 있는 대북 대화 창구의 부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더욱이 장성택 처형의 근거이자 죄목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라선특구를 외국에 팔아먹은 혐의”는 바로 라선에 투자한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으로서는 모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한편, 북·중관계가 예상보다 더 많이 틀어지자 김정은도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2013년 5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 전통적인 북·중관계의 복원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10일 자신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마원춘 당 재정경리부장을 중국에 보내 7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I
II
III
IV
V
VI



결국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북·중 간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협력수준의 전반적 추세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양국 간 교류 빈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 2. 교류목적과 교류주체

### 가. 교류목적

2003년 이후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교류내용은 목적과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교류목적은 친선강화, 정책협의(소통과 조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류형식은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중 간 친선을 위한 인적 교류는 다음이 주류를 이루며 비교적 정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기념, 한국전 참전 기념, 공산당 및 노동당 친선참관단, 지방(정부)대표단, 노동당 창건 기념, 북·중우호조약 체결 기념, 새해맞이 대사관 연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인적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토대가 되는 기념일은 총 6회인데, ① 새해 인사(12월, 1월), ②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 ③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기념일(7월 11일), ④ 북한 정권수립일(9월 9일), ⑤ 중국 건국일(10월 1일), ⑥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등이 그것이다.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2·16, 4·15) 그리고 북한 정권수립일(9·9)과 조선노동당 창건일(10·10)은 중국 측에서 축하의사를 표시하며, 조·중

우호 및 호상원조 기념일(7·11)과 중국 건국일(10·1)에는 북측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 주요 행사 주최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보다는 중국 측의 관계유지 의지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국 간 정책협의를 위한 인적 교류는 대체로 정기적 교류보다는 비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양국 정상교류 및 특사파견, 총리,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고위급 접촉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양상이다. 2003년 이후 정책협의를 위한 교류 가운데 비교적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6자회담 개최 및 재개와 관련된 정책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양상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였지만, 2013년 이후 양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에는 거의 모든 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북·중 간 인적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교류는 첫째, 최고 지도자의 인적 교류, 둘째, 공산당 차원의 교류, 셋째, 정부 차원의 교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첫째, 정상 간의 교류는 후진타오 주석(2005년)과 김정일 위원장(2004년, 2006년, 2010년, 2011년)의 상호 방문, 둘째, 공산당 차원의 교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과 조선노동당 국제부의 교류 그리고 중국공산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 대표단의 교류, 셋째, 정부 차원의 교류는 중국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의 교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교류 등이다.

공산당과 정부 차원의 인적 교류 행사는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정기적으로 이뤄졌으나, 2013년 이후에는 2014년 중국 외교부 대표단

I
II
III
IV
V
VI

의 평양 방문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공산당 교류의 핵심인 중국 대외연락부 대표단과 북한 국제부 대표단의 교류는 제1, 2차 핵실험과 같은 긴장 상황에서도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개최되었지만, 2013년 시 주석의 등장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당과 정부의 교류는 양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예방을 원칙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2009년 1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다시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재개한 첫 행사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왕자루이(王家瑞)의 접견이었다는 것은 북·중 교류에서 대외연락부와 국제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산당 및 정부 간 교류에서는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던 반면, 최고지도자의 상호 방문에서는 북한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중국의 경우 2004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에 방북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기 동안 후 주석의 또 다른 방북은 없었다.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4월의 2박 3일 중국 방문 이후 2006년 1월의 7박 8일 방중, 2010년 5월의 4박 5일, 같은 해 8월의 4박 5일 방중, 2011년 5월의 5박 6일 방중 그리고 같은 해 8월 러시아 방문 후 귀국길에 중국 동북지방을 들른 것 등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다.<sup>7</sup>

결과적으로 2005년에 북한을 단 한 차례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과 달리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이후 사망 전까지 여섯 차례를 포함하여 2000년 이후에만 총 8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북·중관계에서

---

7. 김정일은 2000년 5월 및 2001년 1월에도 방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 사망 직전까지 총 8차례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치적, 외교적 도움이 더 절실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3년 이후 최근까지 각 연도별로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인적 교류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003년은 북한이 2002년 10월 농축 우라늄 핵개발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는 시기였다.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후진타오는 이전 장쩌민 시기와 달리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6자회담을 추진했다.

중국 정부는 6자회담 개최와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다이빙궈(戴秉國)를 평양에 보냈고 그 결과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얻어냈다. 이후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류홍차이(劉洪才))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접견하고 6자회담 개최에 따른 북·중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 해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우방궈(吳邦國)를 단장으로 한 중국 국가대표단이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과 만남을 가졌다.

2003년에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교류는 총 36회였는데 북한 주도가 14회, 중국 주도가 22회였다. 새해 연회(1월), 태양절 기념행사(4·15), 조·중우호 기념행사(7·11), 북한 정권수립일(9·9), 중국 건국일(10·1), 조선노동당 창건일(10·10) 등 6대 기념일은 예정대로 추진되었다.

2004년 북·중 교류는 6자회담과 김정일 방중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과 중국 외교부 대표단(단장: 리자오싱(李肇星))이 방북하여 김 위원장을 예방

I
II
III
IV
V
VI

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북·중 간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와 전통적 우의를 다지고,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북·중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개발의 방향을 참조하기 위해 텐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 등을 시찰하였으며, 에너지 및 식량 지원,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2004년에 당과 정부 차원의 교류는 9월과 10월에 걸쳐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박용석)과 북한 정부대표단(단장: 김영남)의 방중, 중국 공산당 및 정부대표단(단장: 리창춘(李長春))의 평양 방문이 이뤄졌다.

2004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교류는 총 33회였다. 이 중 북한 주도의 교류가 13회였고 중국 주도가 20회였다. 새해맞이 연회(1월), 조·중 우호 기념행사(7·11), 북한 정권수립일(9·9), 중국 건국일(10·1), 조선노동당 창건일(10·10) 등 기념일에는 예년처럼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 있었던 교류의 특징 중 하나는 2월 16일의 김정일 생일을 양국이 비중 있게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4월 15일의 '태양절' 행사를 위주로 인적 교류가 활발했으나 2005년에 들어서는 김정일 생일도 추가된 것이다.

예년에도 중국이 인적 교류를 주도했으나, 특히 2005년에는 중국의 주도가 더욱 두드러졌다. 2월에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의 방북으로 양국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3월 중국공산당 친선대표단의 방북, 4월 중국공산당 청년대표단의 방북, 7월 10일 중국공산당 대표단(단장: 시진핑)의 방북, 7월 12일 후진타오 주석의 특별

대표인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의 방북 그리고 10월 28일 후 주석의 2박 3일 방북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 중국이 주도하는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이유는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타결을 위한 노력과 직후 BDA(방콕델타아시아)은행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북·미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2005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교류는 총 51회로서 북한 주도의 교류 20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31회를 기록하였다. 새해맞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 북한 정권수립일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 기념일에는 평소대로 교류가 실행되었다.

2006년 북·중 간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1월 10일~1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방중하여 김 위원장이 보인 행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함께 중국 중남부 지방의 경제개발 도시들(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을 집중 방문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6년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의 대중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한 해였다. 3월에 조·중친선협회대표단(단장: 전영진), 5월에 백남순 외무상, 6월에 조선노동당 당일꾼대표단(단장: 립형모), 7월에는 정부대표단(단장: 양형섭)이 방중하여 김 위원장 방중 이후의 양국 간 우호 및 교류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10월 9일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은 중국에게 핵실험 30분 전에서야 핵실험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외교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2006년에 단행된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6자회담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 미국은 다자 간 회담에서 벗어나 2007년 1월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2·13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급격한 북·미 양자 간 대화와 접근은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켰다.

2006년 북·중 간의 정기적인 교류는 총 36회였다. 북한 주도가 17회, 중국 주도가 19회였다. 제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일, 북한 정권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 기념일 행사는 예정대로 추진되었다.

2007년 북·중 교류의 특징은 핵실험 이후 멀어진 북·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양국 교류의 출발을 알리는 ‘새해맞이 연회’ 등은 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답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2007년에는 북한이 먼저 중국의 외교부, 대사관 성원, 대외연락부 성원 등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류홍차이)의 방북이 평년보다 늦은 4월에 이뤄졌으며 단장으로 왕자루이가 아닌 류홍차이를 보냈고, 북한은 김 위원장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2007년에 북·중 간 교류는 총 35회로서 북한 주도의 교류 16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19회를 기록하였다.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 기념행사, 북한 정권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에 행해지는 기념행사는 평년과 마찬가지로 치러졌다.

2008년에도 제1차 핵실험 이후 불편해진 북·중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정일 위원장

이 3월 1일 중국 측 특명전권대사의 요청에 따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두 차례나 위문전문(1월 31일)과 축전(3월 15일)을 보냈다.<sup>8</sup>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에 답하여 6월 17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였다. 시진핑 부주석으로서는 2007년 부주석 취임 이후의 첫 해외 순방국이었는데, 이는 차세대 지도자에 대한 상호 교류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양국은 상대국의 건국일 전후로 당과 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를 가졌다.

2008년은 북·중 간 총 40회의 교류가 있었다. 이 중 북한 주도의 교류가 18회였고 중국 주도의 교류가 22회였다.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일, 북한 정권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 노동당 창건일 등을 기념하는 행사는 관례대로 추진되어 양국의 인사들이 오고갔다.

2009년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서 중국이 북한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 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찬성으로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사이 2007년에 북한과 미국은 양자접촉을 통해 ‘2·13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중국은 ‘중국 왕따(China Passing)’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으며,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은 전통적인 북·중관계의 복원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익을 지

8. 김정일은 2008년 1월 31일 후진타오 주석 앞으로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정부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위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하였고, 이어 같은 해 3월 15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1차 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된 후진타오 주석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로동신문』, 2008년 2월 2일, 2008년 3월 16일.



킬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회유와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 때문에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제1차 핵실험 때와 달리 9월 17일에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전통적인 북·중관계 복원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2009년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회복되어 공개 활동을 재개한 시기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북·중관계의 복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중국은 2009년 1월 말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파견하여 김정일 위원장과의 공식 접촉을 시도하였다.

2009년에 북·중 양국은 관례적인 기념일 행사 외에도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조선노동당 국제부의 교류, 중국공산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 대표단 사이의 교류 그리고 북한의 정부대표단인 내각 김영일 총리와 중국의 정부대표단인 원자바오 총리의 교류, 6자회담 개최를 위한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다이빙귀의 방북 등 당 대 당의 교류와 정부 간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2009년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 단절 없이 총 81회의 교류가 이뤄졌다. 북한 주도의 교류가 25회, 중국 주도의 교류가 56회였다. 특히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일, 북한 정권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 6개 기념일 행사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추진되었다.

한편 2010년 북·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2010년 9월 28일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마침내 등장한 것이었다.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공인되었다는 것

은 혁명전통 계승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인적 교류가 증대되어야 할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 측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용강(周永康)이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중국공산당 대표단은 저우용강을 단장으로 당 대외연락부, 지린성(吉林省)위원회, 랴오닝성(遼寧省)위원회, 헤이룽장성(黑龍江省)위원회, 중국 외교부, 상무부, 외사판공실 등 북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10년은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두 번이나 발생(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던 해이다. 따라서 후견국인 중국의 정치외교적 차원의 도움이 매우 절실했다. 그 결과 김정일 위원장은 전례 없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북·중 간의 교류는 총 73회였는데 이 중 북한 주도가 29회, 중국 주도가 44회를 기록하였다. 특히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일, 북한 정권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의 6개 기념일 행사는 모두 2009년과 같이 성대하게 추진되었다.

2011년 북한의 외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된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주도하에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5월에 중국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8월에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뒤 귀국길에 재차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와 같은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은 후계자 결정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I
II
III
IV
V
VI

대외적 고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김정일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의 5월 중국 방문과 8월 러시아 방문 후 귀국길에 들른 장소가 과거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시기 전적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있음을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정일의 5월 방중 이후 7월 11일에는 중국 친선대표단을 이끌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더장(張德江)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 정상 회담에서 약속되었던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리커창(李克強)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처음으로 후계자 자격으로 김정은을 외교무대에 등장시켰으며,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하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북·중 간의 교류는 2009년과 2010년 두 해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총 43회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18회의 교류를 주도하였고, 중국은 25회의 교류를 주도하였다. 예년과 같이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일, 북한 정권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의 6개 기념일 행사는 모두 생략 없이 추진되었다.

2012년 북·중 간 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김정일의 사망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 이후 북·중관계는 조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특히 김정일의 사망 이후 2012년 4월 이전까지 상대국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인적 교류는 없었다.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70회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경축행사에 중국 측 대표들이 참석했

을 뿐이다.

4월이 되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먼저 방문하는 전례와 달리 조선노동당 국제부(단장: 김영일)가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전략대화를 진행하고, 후진타오 주석을 예방하였다. 이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7월에 답방 형식으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을 북한에 파견했지만 김정은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어 중국은 11월 중국공산당 대표단(단장: 리젠궈(李建國))을 다시 파견하여 김정은을 예방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만난 첫 번째 접견이었다.

2012년 북·중 간의 교류는 김정일 사망에 따른 추모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적응시간의 필요성 때문에 총 20회로 축소되었는데, 북한 주도의 교류 8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12회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북·중 간의 교류가 축소된 것은 물론 김정일 사망이라는 특별한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매년 거행하던 새해 연회는 생략하고, 김정일 70번째 생일 기념행사와 태양절 행사만 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중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북한 정권 수립일, 중국 건국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에 행해지던 교류 행사들은 김정일 사망 1주기 기념식으로 대체되었다.

2013년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는 2013년 2월 12일 실시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미국에게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재균형전략

I
II
III
IV
V
VI

(Rebalancing)’을 위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 중국 안보에 ‘전략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에 최룡해 특사를 보내 중국 지도부를 면담하고 시진핑 주석을 예방했지만,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말만 듣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7월에 평양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는 중국 국가대표단(단장: 리원차오(李源潮))이 참석했다. 이는 2013년도 들어 중국 정부대표단의 첫 방문이었다. 아울러 양국은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과 10월 1일 중국 건국일을 맞아 각각 상대방의 기념식에 축하단을 보내줌으로써 관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는 있었다.

2013년 인적 교류는 총 11회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북한 주도의 방문은 8회, 중국 주도의 방문은 3회였다. 또한 그동안 예외 없이 개최되었던 6대 기념일 중 북한 정권수립일과 중국 건국일의 기념행사에만 양국 축하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행사는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2014년 정치외교 분야에서 인적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7월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 우방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정은-시진핑체제 등장 이후 계속 소원해지는 북·중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는 북·중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반면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오랜 친구(老朋友)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4년에 들어서 북·중 양국 간에 있었던 6대 기념일 행사 중 8월 현재 새해 연회,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 조·중우호조약 체결일 등에 거

행하던 기념행사에 관한 관영 언론매체의 보도는 일체 없으며 통상적인 교류인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교류 및 양국 정부 간 교류도 중단된 상태이다. 2월 19일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중국 외교부 대표단(단장: 류전민(劉振民))의 실무 방문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위급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이 중단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북·중관계의 핵심인 최고지도자의 상호 방문도 중단된 셈이며, 정치외교 분야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주요 기념행사에서의 당과 정부대표단의 교환도 현재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2014년에 북·중 교류는 총 7회가 이뤄졌으며, 이 중 북한 주도는 3회이고, 중국 주도는 4회이다. 그러나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방문이 아닌 실무적인 방문이나 관례적인 연회 참석에 머물고 있어 김정은-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양국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나. 교류주체 및 인사

북·중 간 인적 교류 주체는 양국 정상 및 정부, 공산당 및 노동당, 지자체,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조·중우호협회, 대사관 등이 다수를 이룬다. 이외에 양국의 국책기관도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북·중 양국 간 교류가 침체기에 들어선 2014년 5월에도 평양을 방문하여 상대기관인 조선노동당 국제부 산하의 평화군축문제연구소와 교류를 이어갔다.<sup>9</sup>

교류하는 인사는 양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각 급 대표단의 단장

<sup>9</sup>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5일.

I
II
III
IV
V
VI

및 단원 등이며 가장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교류는 양국 정상 방문 시에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특히 김정일의 방중에는 북한 측 주요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여 중국 측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가졌으며, 상호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수행 인원들을 보면 2000년 5월 첫 방중에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 김영춘 국방위원 겸 총참모장, 김국태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 김용순 당 비서, 김양건 당 국제부장 등 북한 내 당과 군사 부문 최고위급 인사들이 수행하였다.

2001년 1월 두 번째 중국 방문에는 김영춘 국방위원 겸 총참모장, 연형묵 국방위원, 김국태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 정하철 당 선전선동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당 국제부장, 박송봉 당 제1부부장, 현철해,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이 수행하였다.

2004년 4월 세 번째 방중에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박봉주 내각 총리,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하였으며,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을 모두 접견하였다.

2006년 1월의 네 번째 방중은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 리광호 노동당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과 함께 베이징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특히 2006년 방중에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전병호 당 군수담당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대부분의 수행단이 군 원로와 장성급 군 인사들로 채워졌다. 때문에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는 개혁에 대해 보수적인 군부 인사들에게 중국의 개혁과 개방현장을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sup>10</sup>

2010년 5월의 다섯 번째 중국 방문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노동당

실세인 최태복, 김기남 당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주규창 당 제1부부장, 현철해, 이명수 국방위원회 국장,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하였다.

2010년 8월 여섯 번째 방중에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태종수 당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 5월 일곱 번째 중국 방문에는 김기남, 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박도춘, 태종수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등이 주요 수행원으로 참가하였다.

끝으로 2011년 8월 러시아 귀국길에 들른 여덟 번째 중국 방문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태종수 당비서, 박봉주 노동당 제1부부장, 오수용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수행하였다.

김정일 방중을 통한 북·중 간 인적 교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장성택과 강석주이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2010년 5월 방중부터 연달아 수행하였는데 이는 그가 당시 외자유치 창구인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북·중 경제협력 논의에 필요했을 뿐 아니라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의 강력한 후견인이었기 때문인 것

<sup>10</sup> 『조선일보』, 2006년 1월 17일; 『한국일보』, 2006년 1월 17일.



으로 해석된다.

김정일의 8차례 방중 가운데 2000년 5월 방중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 모두 강석주가 수행한 사실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강석주는 외무성 제1부상이란 점에서 중국 방문 수행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북한 핵 협상 및 대미외교와 서방외교에 관한 실력자란 점에서 그와 관련된 사안 협의 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고 주장하기 위해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1-1 북·중 정상 회담 주요 내용 및 합의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2000.5.29.~31.	경제협력, 고위급 인사 교류, 사전통보제도, 지역안정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2001.1.15.~20.	상호 친선협조관계 발전,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합의, 국내 정세에 대하여 상호통보, 장쩌민의 방북 초청 수락
2004.4.19.~21.	북·중관계 발전,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합의, 고위급 인사 교류와 각 분야 및 경제무역협조 강화, 후진타오 방북 초청
2006.1.10.~18.	양국 협조 강화, 국제 및 지역문제, 6자회담 추진 등
2010.5.3.~8.	고위층 교류지속,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 및 지역 정세·국정 운영 등 중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소통강화, 경제무역협력 심화, 문화·교육·스포츠 등 인문 교류 확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2010.8.26.~30.	고위층 인사 교류 지속, 경제협력의 추진, 전략적 교류의 강화
2011.5.20.~27.	양국 교류 강화 및 우의관계 심화, 당과 국가를 다스리는 경험 교류와 경제사회발전 촉진 협력, 양국 인민의 복리 증진 협력, 각 영역의 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 및 지역 간 중대 문제에 관련해 상호 소통과 협력
2011.8.28.	러시아 방문 후 귀국길에 지린성 시찰

● 표 II-2 2003~2014년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주요 의제	비고
2003.3.8.~9.	첸치천(錢基琛) 전 부총리	3자회담 참여 설득	
2003.7.12.~15.	다이빙귀 외교부 부부장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친서전달, 6자회담 논의	북한 6자회담 참여 발표 (7.31)
2003.8.7.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개최시기, 의제 및 대표단 구성	
2003.8.19.	류홍차이 대외연락부 부부장	최태복 면담	
2003.10.30.	우방귀 전국인대 의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재개논의, 5천 달러 상당 무상경제원조	북한, 6자회담 수용
2003.12.25.~26.	왕이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논의	
2004.1.19.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일 면담, 비공개	
2004.2.9.	김계관 외무상 부상	6자회담 및 북핵문제 논의	
2004.3.24.	리자오싱 외교부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 논의	
2004.4.19.~21.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유 무상원조, 북핵문제 해결방안 논의	후진타오 등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접견
2004.9.10.~13.	리창춘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경제지원 논의	
2004.10.19.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경제원조, 6자회담 논의	
2005.2.19.~23.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김영남 면담, 북·중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과 공동의 관심사 의견교환	
2005.3.22.~27.	박봉주 내각총리	6자회담 및 북·중 투자협정 체결	
2005.4.5.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북·중 친선관계 및 핵문제	

I  
II  
III  
IV  
V  
VI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주요 의제	비고
2005.4.22.	후진타오 주석	김영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접견	
2005.7.12.~14.	탕자쉬안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 백남순 외무상과 면담	
2005.8.27.~29.	우다웨이(武大衛)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추동 논의	
2005.10.28.~30.	후진타오 주석	북·중 우호협력관계 강화, 6자회담, 경제원조	
2006.1.10.~18.	김정일 위원장	북·중 우호협력관계 강화, 경협확대, 위폐문제 등 6자회담 입장 조율	남방경제 특구시찰
2008.6.17.~18.	시진핑 부주석	부주석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 상호 전통우의 강화	
2009.9.17.~18.	다이빙궈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 6자회담 재개 논의	
2009.10.5.~7.	원자바오 총리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친선방문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	
2010.5.3.~8.	김정일 위원장	대를 이은 전통 우호협력관계 강화, 경제교류협력 강화, 6자회담 재개 조율	상대적으로 조기 귀국
2010.8.26.~30.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요청, 경제교류협력 논의	지안(集安) 시 루트로 방중, 동북지방 시찰
2010.10.10.~12.	저우용강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노동당 창건일 축하,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축하
2011.5.20.~27.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전통우호관계 강화, 경제교류지원 논의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주요 의제	비고
2011.7.11.~14.	장더장 상무위원	김정일 방중 후속조치 논의,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기념활동	
2011.10.23.~25.	리커창 상무위원 겸 부총리	양국 차세대지도자의 전통우호관계 지속, 상호경제교류협력 논의	
2012.4.22.~25.	김영일 국제부장	조선노동당-중국공산당 전략대화 진행, 대를 이은 전통우호관계 강화	후진타오 면담
2012.8.13~17.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양당, 양국의 전통 우호관계 강화, 경제교류협력 논의	
2012.11.30.~12.1.	리젠궈 전국인대 부의장	후계체제 구축 지지, 양당 간 전통 우호관계 지속	시진핑 체제 등장 후 첫 방북인사
2013.5.23.~27.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제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정세, 북·중우호관계 지속	시진핑 면담
2013.7.26.~28.	리웬차오 국가부주석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양국 지도부 우호관계 지속	김정은 면담
2014.2.17.~20.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북·중관계와 지역정세, 6자회담 재개 공동노력	

I

II

III

IV

V

VI





### Ⅲ. 군사 분야 인적 교류



# 1. 개황과 추이

## 가. 전반적 추세

북한은 중국의 국공내전 시기 북한지역을 후방기지로 제공하는 등 중국공산당 군대를 적극 지원했으며,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 작전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북한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양국관계를 혈맹관계로 발전시켰다. 이후 북·중 양국은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1961.7.11.) 하였으며, 계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이른바 ‘자동군사개입조항’을 삽입하였다.<sup>11</sup> 이에 따라 냉전기 북·중 간 군사 분야 인적 교류는 비공식적·사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매우 밀도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중 군사관계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혈맹관계라는 색채를 잃어버리고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군사협력보다 친선우호 방문을 위주로 하는 상징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왔다. 군사 교류도 갈수록 점도와 긴밀성이 이완되어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양상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김정일-후진타오시기(2003~2011년)와 김정은-시진핑시기(2012~2014년)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이한 점은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두 시기 모두에서 군사 분야의 교류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북·중 간의 정치외교 분야에서 이뤄진 인적 교류의

<sup>11</sup> 북·중 동맹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I
II
III
IV
V
VI



횟수는 총 466회에 달한 반면, 군사 분야의 교류는 총 65회에 그쳤다 (<그림 III-1>). 총 65회의 교류에서 북한이 주도했던 인적 교류는 총 28회이며, 중국이 주도했던 것은 총 37회로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처럼 중국이 북한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9년(총 7회), 2010년(총 13회)으로 이 기간에 북한은 총 8회를 주도했으며, 중국은 총 12회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외교 분야에서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2009년(총 81회)과 2010년(총 73회)의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2009년 양국 간 군사 교류의 특징은 북한(4회)이 중국(3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비난을 문제 삼아 인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시켰는데 그 부작용이 심했던 것을 교훈삼아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09년 1월 후계자 내정 이후 국제적 고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북한 측의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양국 간의 군사 교류는 중국(9회)이 북한(4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이는 중국 또한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북·중 교류를 사실상 중단시켰으므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를 잃어버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후 2008년 12월에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밑바탕에는 김정일의 두 차례 방중과 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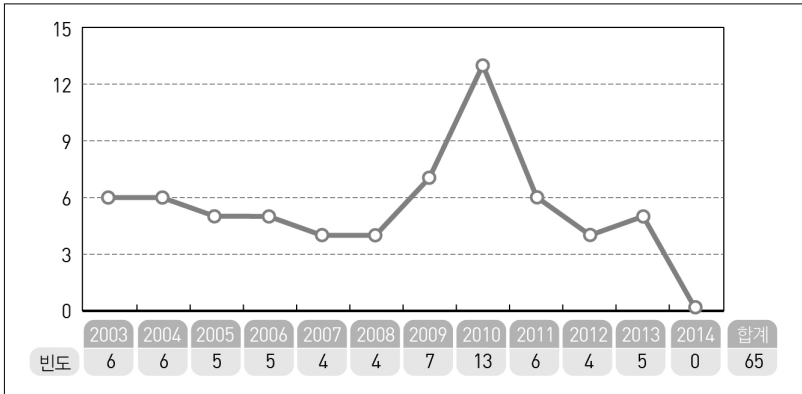
자 김정은의 등장으로 대를 이어 혁명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선대 지도자들의 뜻을 살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북·중 간 군사 분야의 교류 역시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처럼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김정일-후진타오 시기 양국 간의 군사 분야 교류 횟수는 연평균 6회였지만, 김정은-시진핑 시기에는 절반 이하로 추락하였다. 특히 2014년에 군사 분야의 교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변화된 북·중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시기별 지속성과 변화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는 정치외교 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사 분야 인적 교류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중 간 2003년 이후 군사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빈도는 <그림 III-1>과 같다.

● **그림 III-1** 2003~2014년 북·중 간 군사 분야 인적 교류 빈도 추이 (단위: 회)



\* 2014년은 5월까지.

\* 군 최고통수권자인 양국 정상의 방문은 제외(정치외교 분야에 포함).

2003년 이후 북·중 간 군사 분야 인적 교류는 2009년 7회와 2010년 13회를 제외하면 대체로 4~6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군 인적 교류가 친선 차원의 의례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0년 약 2배 가까운 증가는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과 천안함 폭침사건(2010.3), 연평도 포격사건(2010.11)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따른 북·중관계의 강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2)에 따른 북·중 협력관계의 약화와 전략적 소통의 부재는 군사 분야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양국 간 변화된 정치외교적 긴밀도와 협력수준의 전반적 추세가 군사 분야의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인적 교류의 횟수가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군사 분야의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 횟수가 대략 4~5회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군사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협력수준에 관계없이 그동안 꾸준히 교류를 이어온 행사는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10월 25일)의 기념행사이다.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은 양국 간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확인하는 정치적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보다 주도적으로 주최하여 왔다. 김정일-후진타오 집권 시기 이 두 행사는 북한의 핵실험, 김정일의 건강 이상 등 양국 간의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측 주도로 치러졌으며 양국 간의 정기적인 군사 교류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2년 양국이 각자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와 인민군열사묘 준공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 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 행사는 현재까지 거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전쟁이며,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승리전쟁인 한국전쟁에 대한 기념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 측의 변화된 태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쟁 참전을 통해 다져진 북·중 간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향후 북·중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보통 국가관계로 가져가고자 하는 중국 측의 변화된 의도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 2. 교류목적과 주체

### 가. 교류목적

북·중 간 군사 분야 인적 교류의 목적은 대부분 친선 차원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비교적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8월 1일) 행사 및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 참전일(10월 25일) 기념 행사 등이다. 이 두 개의 행사는 군사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토대가 되지만 매년 거행되는 행사의 참여자 및 직위는 고정적이다.

정책협의 차원의 군 고위급 인사 교류는 비정기적이며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그나마 정책협의를 위한 차원의 군 고위급 인적 교류는 북한 측 인사의 방중이 중국 측의 경우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4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중 및 2013년 5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은 북핵문제 및 북·중관계를 포함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책협의 목적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VI

한편 김정일의 중국 방문 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매번 동행하였던 것을 볼 때, 정상방문을 기회로 북·중 간 군사 분야의 인적 유대강화와 정책협의 역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3년 5월 김정일의 특사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판창룡(范長龍)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왕관중(王冠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등 중국 측 고위급 군부 인사들과 회담하였다. 김정일의 특사 방중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성격이 강했음에도 중국 측 군부 인사들과의 교류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도별 주요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개발 가능성을 인정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이후 중국 주도로 베이징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이다. 특히 4월에는 미국, 북한, 중국 등이 참가하는 3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북·중 간 군사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4월에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와 회담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8월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이자 상장이인 쉬차이호우(徐才厚)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 회담을 진행하였다.

2003년에 이뤄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군사 교류는 총 6회인데, 이 중 북한 주도가 2회, 중국 주도가 4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과 중국인민해방군 한국전 참전일(10월 25일) 기념행사는 관례대로 진행되었다.

2004년 북·중 간 인적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김정일이 최고지도자 등극 이후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북·중 간 군사 교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일의 4월 방중에 대한 후속 교류의 성격으로 7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군사대표단의 방중이다. 그러나 북한 군사대표단은 후진타오 주석을 예방하지 못했다.

2004년에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군사 교류는 총 6회였으며, 이 중 북한 주도의 교류 2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4회를 기록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는 관례대로 진행되었다.

2005년 북·중 간 군사 교류는 주목할 만한 방문보다는 의례적인 교류만 있었다. 이 시기 정규적인 교류는 총 5회인데, 북한 주도의 교류가 3회, 중국 주도의 교류가 2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 기념행사와 대표단 방문은 예년처럼 진행되었지만,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을 맞아 매년 해오던 중국대표단의 방북은 생략되었다.

2006년에 들어서 새해 벽두부터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1월 10일~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북·중 간 군사 교류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2006년 이뤄진 군사 분야 교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차오강촨(曹剛川)의 방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정규적인 교류는 총 5회였으며, 북한 주도의 교류 2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가 3회를 기록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 기념행사와 대표단 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 기념행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2007년도 북·중 군사 교류는 전년에 단행된 핵실험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다. 다만 북한 군부의 대외사업일꾼 대표단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만난 것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에서는 당시만 해도 외화수입의 약 70%를 벌어들이는 무역회사를 북한 군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 군부의 대외사업일꾼 대표단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예방한 것은 북핵 실험에 따라 악화된 양국 관계로 인해 외화벌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평가된다.

2007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군사 교류는 총 4회였으며, 이 중 북한 주도의 교류 1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3회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10월 25일)은 관례대로 기념행사와 대표단 교환방문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의 경우 북·중 군사 교류의 특징은 핵실험 이후 멀어진 북·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도 북한 군부의 대외사업일꾼 대표단은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하였으며, 이는 북·중 간의 대외무역을 고려한 조치로 파악된다.

2008년에 이뤄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교류는 총 4회인데, 이 중 북한 주도가 3회, 중국 주도가 1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따른 교류는 예년처럼 진행되었으나,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을 맞아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보도는 없었다.

한편 2009년 북·중 군사 교류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동년 5월에 제2차 북핵 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군사 교류가 오히려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전반기에는 군사 교류가 거의 없었으나 9월 이후부터는 대폭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군사 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중국이 주도해 온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 기념행사를 북한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2차 핵실험의 여파로 냉각되기 쉬운 북·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11월 23일 고위급 군부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여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으로서도 전통우호의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군사 교류는 총 7회였으며, 이 중 북한 주도의 교류 4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3회를 기록하였다.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북한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 기념행사는 제2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거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양국 간에 고위급 인사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군사 분야에서도 가장 활발한 교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중국이 북한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다. 2006년 제1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결과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감소를 체감해야 했으며, 6자회담 역시 공전됨으로써 심각한 외교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제1차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0년이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60주년이 되자 북한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주도했는데 여기에 중국은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

I
II
III
IV
V
VI



주석 귀보슝(郭伯雄)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군사 분야 교류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김정일도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중국 측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였다. 이는 2010년 9월 북한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공식화한 직후 양국 간 혈맹전통을 다시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군사 분야 교류는 총 13회였는데, 이중 북한이 4회를 주도했고, 중국이 9회를 주도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에 실행해오던 교류는 관례대로 진행되었고,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는 북한의 주도로 혈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추진되었다.

2011년 북·중 군사 교류는 김정일 위원장의 5월 방중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는 2010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2010년도의 방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내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국을 탈피해 러시아 등 대외 교류의 상대를 다원화함으로써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하려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중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도 군사 분야 교류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공안부장인 멩젠주(孟建柱)가 2월 13일 방북하여 김정일을 비롯해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과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만난 것이다.

이 밖에 8월 6일에는 중국인민해방군 훈련합대가 북한 원산항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 행사를 이어갔다. 비록 군사 교류가 침체상태를 보인다 해도 해군합대의 상호 방문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북·중 간의 전통우호유산이 군부 내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2011년 정규적인 군사 교류는 총 6회이며, 이 중 북한 주도의 교류가 3차례, 중국 주도의 교류 역시 3차례가 있었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을 기념하는 행사와 이에 따른 대표단의 교환에 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2012년 북·중 간 모든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교류동향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중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조문 분위기로 전환되어 고위급 군사지도자의 상호 방문과 교류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북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가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으로 개건되어 준공되었으며, 중국 선양(瀋陽)에서는 11월 7일 조선인민군열사묘가 새롭게 단장되어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2012년에 이뤄진 북·중 간의 정규적인 교류는 총 4회였으며, 이 중 에서 북한 주도의 교류 2회와 중국 주도의 교류 2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 기념행사는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추모 분위기 속에서 모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북·중 간 군사 교류는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과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위한 도발행위 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만 고위급 방문으로는 5월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최룡해는 6월에 있을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관계의 복원을 위해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였다.

2013년은 본격적으로 김정은-시진핑 시대가 열림으로써 양국 간의 군사 분야에 대한 교류가 증가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군사 교류도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2013년에 이뤄진 군사 분야 교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7월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기념행사를

I
II
III
IV
V
VI

축하하기 위해 방북한 중국 대표단을 김정일이 직접 접견한 것이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라도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복원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2013년 북·중 간 군사 분야의 정규적인 교류는 총 5회이며, 이 중 북한 주도가 2차례, 중국 주도가 3차례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창건일 기념행사는 관례대로 진행되었지만,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 기념행사는 악화된 양국관계로 인해 거행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2014년 10월 현재 양국 간의 군사 분야 교류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2014년 들어 군사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는 김정일-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틀어진 북·중관계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류주체

북·중 양국의 군사 분야 인적 교류의 주체는 체제 특성상, 양국의 군 관련 부문 인사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민해방군, 국방부, 당(국)군사위원회, 국경수비대 등의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조선인민군,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이 주로 나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민간 차원의 노병 및 혁명열사 가족 등이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 및 정전 기념행사 등에 초청되어 자주 참석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참전으로 다져진 북·중 간 전통 우호친선관계와 군사 분야에서 혈맹 전통의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 2003~2014년 북·중 간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주요 의제	접촉인사 및 직위	비고
2003.4.21.~23.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친선	후진타오 총서기, 귀보송 군사위 부주석	
2003.8.19.~23.	쉬차이호우 군 총정치부 주임	친선, 6자회담 논의	김정일, 조명록,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2004.7.13.~15.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친선	차오강환 국방부장	
2005.4.23.~24.	박재경 대장	친선	귀보송 중앙군사위 부주석	조선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
2006.4.5.~6.	차오강환 국방부장	친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조명록 총정치국장	
2007.8.8.~11.	둥스핑(董世平) 중장	친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2008.4.23.~26.	리병철 공군사령관	친선	량광례 국방부장, 공군사령원 쉬치량	
2009.1.22.~26.	량광례 국방부장	친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2010.10.23.~26.	귀보송 중앙군사위 부주석	친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 기념
2011.2.13.~15.	멍젠주 공안부장	친선, 정책협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2012.4.5.~9.	치엔리화(錢利華)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친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2013.5.25.~27.	최룡해 총정치국장	친선, 정책협의	판창룡 중앙군사위 부주석	김정은 특사방중

I  
II  
III  
IV  
V  
VI

북한은 북·중 간 교류의 원칙을 ‘당(黨) 대 당(黨)’의 관계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 국제부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교류를 핵심으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선노동당 내에는 이미 숙청된 장성택을 비롯해 김양건, 김영일, 지재룡 등 일부 지중파가 존재하지만, 군부 내에는 1950년대 민족보위상과 1970년대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최현을 제외하고는 지중파로 분류되는 군부 인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중국과의 전통우호 및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북한군의 국공내전 참전과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다져진 양국의 군사 교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은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최고지도부(김일성과 김정일)의 생각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김일성 주석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펑더화이는 전쟁 중 김일성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인 무정의 정치적 후원자였다. 또한 중국은 펑더화이를 앞세워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김일성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결국 중국 군대의 존재는 전쟁 이후에도 김일성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었으며, 그 결과 김일성은 전쟁 복구지원을 위해 남아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을 1958년 완전 철군시켜 버렸다.

북·중 간 군사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김정일 위원장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위기를 맞자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위기극복에 나섰다. 당시 김정일의 입장에서 군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혁명적 순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김정일로 하여금 북·중 군사 교류에 대해

더욱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 것은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소련 ‘프론제 군사학교’ 출신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쿠데타 시도가 발각되어 1993년에 숙청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후 김정일은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타국과의 군사 교류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외국과의 군사 분야 인적 교류 자체가 심각한 체제 위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인식은 중국과의 군사 교류에 대한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중국 대외연락부를 비롯해 중국공산당 대표단, 그리고 외교부장 및 국무위원 등의 방문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직접 접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북·중 간의 군사 교류에서 김정일이 중국 군사대표단을 직접 만난 것은 2003년 쉬차이호우를 단장으로 한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군사대표단의 방북과 2010년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방문한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군사대표단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부장은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하였으나 단 한 번도 김정일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이는 군사 교류에 대한 김정일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군사 교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중국 측의 응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후진타오 주석도 2003년 방중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을 직접 접견한 이후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군사대표단을 직접 만난 사례가 없다.

---

<sup>12</sup> 프론제 출신이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재학 중 자매결연 관계였던 소련 프론제 군사 아카데미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주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었으며, 북한 군부의 상층부에 포진하고 있었으나 1993년경 쿠데타 시도 죄목으로 대거 숙청되었다.

김정은의 경우는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군사대표단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2013년 7월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승리 60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인민지원단 노병대표단과 중국인민지원군 노병 및 열사가족 대표단을 직접 만난 적은 있는데, 이는 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IV. 경제 분야 인적 교류





# 1. 개황과 추이

## 가. 전반적 추세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핵심인 무역 부문에서 북한의 경우 대중무역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아래 <표 IV-1>과<sup>13</sup> <표 IV-2>에서<sup>14</sup>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올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표 IV-1 최근 5년 북·중 무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1,710,281(-38.6)	3,465,678(102.6)	5,629,192(62.4)	5,930,542(5.4)	6,579,694(10.9)
수출	1,209,636(-40.5)	2,277,816(88.6)	3,165,006(39.0)	3,445,843(8.9)	3,663,150(5.4)
수입	500,645(-33.6)	1,187,862(137.3)	2,464,186(107.4)	2,484,699(0.8)	2,911,544(17.2)
수지	708,991	1,089,954	700,820	961,144	751,60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중국무역.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sup>13</sup> 성백웅·양지연, “2013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Vol. 13, No. 9 (한국무역협회, 2014), p. 12.

<sup>14</sup> 신중호 외,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3), p. 59.

표 IV-2 북한의 대외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연도	대중국교역/대외교역	대중수출/대외수출	대중수입/대외수입
2000	24.7	6.6	32.0
2001	32.5	25.7	35.2
2002	32.6	36.6	30.5
2003	42.8	50.6	39.0
2004	48.5	57.5	43.5
2005	52.6	49.9	54.1
2006	56.7	49.3	60.1
2007	67.1	63.3	68.9
2008	73.0	66.7	75.6
2009	78.5	74.8	80.3
2010	83.0	78.7	85.6
2011	88.6	88.3	88.7
2012	88.3	86.3	89.8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투자유치도 중국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11년 5,595만 달러에 달하며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수는 약 150개사로 추정된다.<sup>15</sup>

표 IV-3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 추이<sup>16</sup>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투자액	0.26	1.50	1.12	14.13	6.50	11.06	18.40	41.23	5.86	12.14	55.95

자료: 中國商務部·中國國家統計局·中國國家外匯管理局(2002~2012),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각 연도.

<sup>15</sup> 이원근, “북한·중국의 경제관계 실태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20권 3호 (대한정치학회, 2013), p. 74.

<sup>16</sup> 신중호 외,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p. 62.

이러한 경제 분야의 추이에 비추어 북·중 간 인적 왕래도 최근에 올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2005년부터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V-4 중국 입국자 수

(단위: 만 명)

연도	나라	합계	목 적				
			회의/사업	관광	친지방문	취업/근무	기타
2014 1~6월	한국	194.08	52.53	83.00	1.08	18.81	38.66
	북한	9.17	1.77	0.07	0.00	4.40	2.93
2013	한국	396.91	129.75	172.71	1.39	38.60	54.46
	북한	20.66	5.51	0.29	0.03	9.33	5.50
2012	한국	406.99	134.67	185.59	0.81	35.61	50.31
	북한	18.06	5.52	0.45	0.02	7.96	4.11
2011	한국	418.54	140.60	196.32	0.75	32.59	48.28
	북한	15.23	3.90	0.46	0.01	7.53	3.33
2010	한국	407.64	137.89	196.24	0.50	31.79	41.22
	북한	11.63	2.53	0.43	0.04	5.39	3.24
2009	한국	319.75	116.79	134.92	0.61	30.32	37.11
	북한	10.39	1.94	0.41	0.03	5.21	2.80
2008	한국	396.04	113.26	210.93	0.53	31.99	39.33
	북한	10.19	1.83	0.49	0.07	4.68	3.12
2007	한국	477.69	157.21	250.82	0.73	33.46	35.47
	북한	11.37	2.06	0.79	0.03	5.42	3.07
2006	한국	392.40	121.44	206.87	1.57	27.49	35.03
	북한	11.01	2.69	0.54	0.15	5.08	2.55
2005	한국	354.54	99.48	176.26	4.32	23.30	51.18
	북한	12.59	2.92	0.40	0.21	6.48	2.58

\*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I  
II  
III  
IV  
V  
VI

<표 IV-4>에서 보듯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수가 한 해 10만 명 내외이던 것이 2011년에는 약 15만 명, 2013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약 45~50%가 워킹비자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2% 늘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06년에 감소하여 2008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2011년부터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가한 해이며 2008~2010년은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북한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또한 김정일 정권 마지막 3년과 김정은 정권 3년을 비교하면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후자에서이다.

## 나. 시기별 지속성과 변화

『로동신문』에 보도된 경제관련 인적 교류는 공개된 것이고<sup>17</sup> 또 공적 성격을 띤 것인데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연도별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2005년과 2006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2013년에 크게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앞서 언급한 중국 방문 북한인의 숫자에 관한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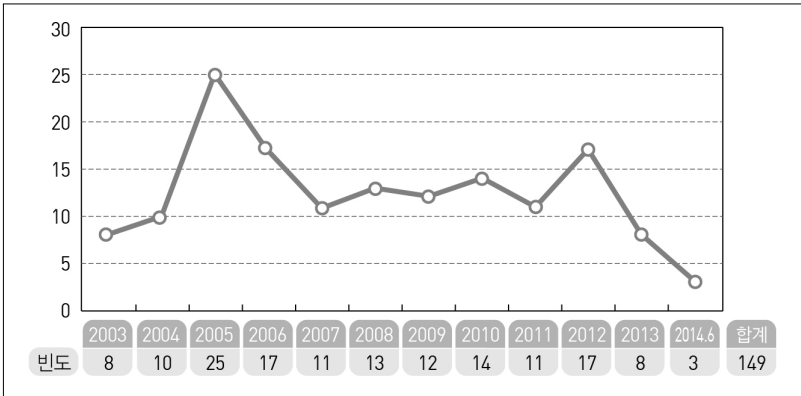
---

17. 북·중 간 경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가운데 비공개된 것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공개된 교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고 수집한다 하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비공개된 교류의 한 예로서 북한에서 경제특구 개발을 총괄하는 김기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로 방중해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 2014년 2월 26일.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의 하나가 북·중 정부관계의 변화 여부라면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보다는 『로동신문』에서 보도한 횟수의 증감을 나타낸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유용하다. 『로동신문』에서 보도한 교류는 정부 간이거나 준정부 간 성격의 교류이기 때문이다.

●그림 IV-1 연도별 북·중 간 경제 교류 빈도

(단위: 회)



위의 그래프가 나타내듯 연도별 교류 횟수는 2003년 8회, 2004년 10회, 2005년 25회, 2006년 17회, 2007년 11회, 2008년 13회, 2009년 12회, 2010년 14회, 2011년 11회, 2012년 17회, 2013년 8회, 2014년 상반기 까지 3회로서 총 149회이다. 북한 쪽에서 중국으로 간 것이 65회이고, 중국 측에서 북한을 찾은 것이 84회이다. 매년 중국 측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많았으나 2010년만 북한 쪽에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 두 차례 많았다.

그런데 『로동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북·중 간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유력한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는 ‘투자조선 중·조경제무역협작망(www.idprkorea.com)’인데 단동시

I  
II  
III  
IV  
V  
VI

정보협회(丹東市信息協會)가 200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웹사이트이다. 단둥시 정보협회는 정보자원 개발과 정보교류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북한 정부의 대외경제무역 부서 및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중국기업에 대북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협회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 경제무역안내』, 『북한 대외경제무역기업』 등 대북 경제무역협력 관련 전문서적과 『한반도경제동태』 등의 정보 간행물을 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종류의 서적과 간행물자료를 편집 발행하는 자문기구이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로동신문』의 보도와 비교해 보면 『로동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교류가 다수 있다. <표 IV-5>는 『로동신문』의 보도를 토대로 중국 측 웹사이트의 자료를 첨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IV-5 연도별 북·중 간 경제 분야 인적 교류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2차 회의 (8.22~31,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국가품질 감독국과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국, 품질인증분야 협조 협정 체결 (9.15,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과학기술 대표단 방중 (4.7~20)</li>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39차 회의 (8.20, 평양)</li> <li>○ 조·중 기상과학 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2차 회의 (11.17,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8.11~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금속기계 공업성 대표단 방중(7.14)</li> <li>♣ 조·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50돐 기념연회 (11.20, 베이징)</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55차 회의 (12.5, 베이징)</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3차 회의 (5.26~6.5, 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경제무역 대표단 방북 (6.29~7.3)</li> <li>♣ 대한천산유리 공장 건설 착공식 (7.1)</li> <li>○ 북한 경제무역 대표단 방중 (12.11~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가해양국 대표단 방북 (10.12~19)</li> <li>○ 중국 기술실무 대표단 방북 (10.25)</li>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0차 회의 (12.10,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7~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인민은행 대표단 방북 (8.17)</li> <li>○ 북한 중앙은행 대표단 방중 (10.26~30)</li> <li>○ 홍콩 엠페리그룹 대표단 방북 (11.27~11.30)</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4차 회의 (5.21~5.29, 평양)</li> <li>○ 북한 철도성 대표단 방중 (10.24~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2005~2006년 규격화 계량·품질감독, 품질인증 부문 협조 계약서) 조인식 (4.25, 베이징)</li> <li>○ 북한 경제무역 대표단 방중 (3.15~19, 베이징) - 조·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과학기술 협력협약서 서명식(7.8, 산둥) - 식용균 연구 및 개발에 대해 합의</li> <li>♣ 북한 조선과학원 과학기술 대표단 선양계산소 방문(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6~19)</li> <li>♣ 제회 북한수출입 상품교역회 (6.21~23, 단둥)</li> <li>○ 제1차 중국 지린 - 동북아 101투자 무역박람회 (9.1~5, 창춘 (長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국제산업 발전유한공사 대표단 방북 (1.16)</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56차 회의 (3.25, 평양)</li> <li>○ 북한 전기석탄 공업성 대표단 방중(6.4)</li> </ul>

I  
II  
III  
IV  
V  
VI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회의 개최</li> <li>○ 조·중 &lt;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gt;과 &lt;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gt; 조인식 (3.22, 베이징)</li> <li>○ 중국 지린성 경제무역대표단 방북(7.13)</li> <li>○ 중국 정부경제 무역대표단 방북(8.22)</li> <li>♣ 중국 푸젠성 기업 대표단 방북(11.2~6)</li> <li>○ 조·중 &lt;해상공동 석유개발협정&gt; 서명식 (12.24,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기상국 대표단 방북 (9.1)</li> <li>○ 조·중 &lt;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gt; 조인식 (10.10, 평양)</li> <li>○ 조·중 &lt;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gt; 조인식 (10.28, 평양) - 후진타오 주석 방북하여 참석</li> <li>○ 북한 지진국 대표단 방중 (11.24~12.4) - 지진국 간 2006~2007년도 과학기술교류 계획서 조인(11.25)</li> <li>○ 조·중 기상과학 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3차 회의 (12.5, 베이징)</li>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1차 회의 (12.23,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10.24~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방직 및 피복공업 대표단 방북(7.23)</li> <li>○ 중국 국가전력망 공사 대표단 방북(9.13~17) - 조중 수력발전 회사 창립 50돐 경축집회 (9.14) 및 연회 참석</li> <li>○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 방북 (9.17)</li> <li>○ 중국 서광자동차 집단 대표단 방북(10.7)</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57차 회의 (11.7, 베이징)</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육해운상 대표단 방중 (5.20~27) - 차량운수협정 서명 (5.23,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둥회상하이외 투자유한공사 이사장 일행 방북(3.8~12)</li> <li>♣ 중국 유색그룹·지린하오롱그룹·북한금강총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과학원 선양생태소 방문(5월)</li> <li>○ 중국 과학원 대표단 방북 (6.13~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5~18)</li> <li>♣ 제1회 조·중 경제 무역투자상담회 및 북·중 경제무역 투자상담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농업 과학원 대표단 방중(3.6~14)</li> <li>○ 북한 정부경제 대표단, 중국 동북 3성 방문 (3.22~28)</li> </ul>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민용항공 총국 대표단 방북(5.24)</li> <li>♣ 조중&lt;문익별연구소 건설협력에 관한 협의서&gt; 서명식 (6.27, 평양)</li>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5차 회의 (7.13~21, 창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북한 유색금속 협력개발협의&gt; 서명식 (4.13, 베이징)</li> <li>○ 조·중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2차 회의 (5.9~12, 평양)</li> <li>○ 북한 국가품질 감독국과 중국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lt;검사·검역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gt; 조인식 (5.17, 베이징)</li> <li>○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및 국제상회 대표단 방북(8.18~22)</li> <li>♣ 중국 유색그룹·중색국제광업 주식유한공사·홍투산동광·북·중국제광업공사, &lt;북한 해산동광 공동 개발에 관한 협력 협의서&gt; 서명식 (9월, 베이징)</li> <li>○ 중국 베이징 보동지원무역 유한책임공사 대표단 방북 (12.19~26)</li> <li>♣ 중국 허난 초월기업그룹과 북한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조·중 정부 경제 기술협력협정&gt; 서명식 (7.10, 평양)</li> <li>♣ 제13차 조·중 해양과학기술협력 회의 (11.2~3,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1~24, 단둥)</li> <li>○ 제2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투자 무역 박람회 (9.2~6, 창춘)</li> <li>○ 제2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9.25~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개발은행 대표단 방북 (5.13~16)</li> <li>○ 중국 온주상회 대표단 방북 (6.20~25)</li> <li>♣ 북한 입업 대표단 방중(8.26~9.11)</li> <li>○ 중국 광수집단 유한공사 대표단 방북(9.8)</li> </ul>

I
II
III
IV
V
VI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06		양수입물자 교류 총회사, <투자총회회사> 서명식 (12.23, 허난성 (河南省) 안양)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6차 회의 (5.29~6.6, 평양)</li> <li>♣ 북한 파이프관 기술교류단, 중국 제남송유공사 방문(9.15)</li> <li>○ 중국 선급사 대표단 방북 (10.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상업 회의소 대표단 푸젠성 방문 (7.27)</li> <li>○ 조·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3차 회의 (9.3,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과학 기술총연맹 대표단 방중 (3.25~4.2)</li> <li>♣ 조·중 정보기술 공동연구개발 기구 중국 산양에 설립(5월) - 북한 조선과학 원의 IT전문가 14명 파견</li> <li>○ 북한 조선과학 기술총연맹 대표단 방중 (10.22~11.2)</li> <li>○ 조·중 기상과학 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4차 회의 (11.27~12.1, 평양)</li>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2차 회의 (12.13,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차 평양별철 국제상품전람회 (5.15~19)</li> <li>♣ 제2회 북한 수출 입상품교역회 및 조·중경제무역 투자상담회 (6.26~29, 단둥)</li> <li>○ 제3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투자 무역박람회 (9.2~6, 창춘)</li> <li>♣ 북한 국가과학원 대표단 &lt;2007동북아첨단기술 박람회&gt; 참가 (9.20~22, 선양)</li> <li>○ 제3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10.8~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개발은행 대표단 방북 (8.17)</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철도성 대표단 방중 (1.19)</li> <li>○ 중국 민항 대표단 방북(6.16~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중 합자기업인 평양아명조명 합영회사 개업식 (2.27)</li> <li>♣ 북중 합자기업인 평양백산연초 합영회사 개업식 (4.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차 평양별철 국제상품전람회 (5.12~15)</li> <li>○ 제4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 투자무역박람회 (9.2~6, 창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세관총국 대표단 방중 (6.3~6.7) - &lt;세관분야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gt; 조인</li> </ul>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교통운수부 대표단 방북 (6.16~19) - 〈차량운수 협정〉 서명</li>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7차 회의 (6월, 선양)</li> <li>○ 중국 수리부와 북한 기상수문국, 수문협약장 회의 (10.24~30,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기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대표단 방북(6.14~18)</li> <li>○ 조·중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4차 회의 (10.14, 평양)</li> <li>○ 북한 무역성 대표단 방중 (11.10~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9.22~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중화장상 연합회 대표단 방북(9.15)</li> <li>♣ 조·중 경제·문화 협력협정 서명 55주년 기념 경축연회 (11.20, 평양)</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민용항공 중국 대표단 방중(6.23~27)</li> <li>○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 방중 (9.9~16) - 기상과학기술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5차 회의,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 사업 협조에 관한 회의 진행 (9.15,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5차 회의 (128~12,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과학기술부 대표단 방북 (3.16~20)</li>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3차 회의 (5.7, 평양)</li> <li>♣ 쓰촨성 과학기술협회 대표단 방북 (5.19~26)</li> <li>○ 조·중 해양과학기술협조 제14차 회의 (6.15~19, 평양)</li> <li>○ 중국 지린랴오닝 과학기술협회 대표단 방북 (7.28~8.2)</li> <li>○ 중국 네이멍구 (內蒙古) 과학기술협회 대표단 방북(8.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1~14)</li> <li>○ 제5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9.2~6, 청춘)</li> <li>○ 제5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9.21~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60차 회의 (2.28, 베이징)</li> <li>♣ 중국 농업과학원 대표단 방북 (8.24~29)</li> <li>♣ 지린성 대표단 북한 라스시 방문 (10.25~26) - 청진항과 나진항 협력개발과 이용, 북·중접경지역 국경다리 건설, 나진항의 도로건설 및 경제협력 등에 관해 의견교환</li> </ul>

I  
II  
III  
IV  
V  
VI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국가과학원 대표단 &lt;2009년 동북아첨단 기술박람회&gt; 참가 (9.24~30, 선양)</li> <li>♣ 조·중 &lt;경제기술 협조협정&gt; 서명식 (10.4, 평양)</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압록강 망강루, 문악 발전소 착공식(3.31)</li> <li>○ 조·중 신 압록강 대교 착공식 (12.31, 단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국가품질 감독국과 중국 국가 품질 감독 검사검역총국, &lt;2010~2012년 규격화·계량·품질감독 부문 협조계획서&gt;, &lt;2012~2012년 검사·검역 부문 협조계획서&gt;, &lt;2010~2012년 품질인증 부문 협조계획서&gt; 서명식 (8.11, 베이징)</li> <li>○ 라선경제무역 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 공동지도 위원회 제1차 회의(11.19, 평양)</li> <li>○ 조·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6차 회의 (11.23~24,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lt;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gt; 서명식 (7.29, 평양)</li> <li>○ 북한 정부과학 기술 대표단 방중(8.21)</li> <li>○ 조·중 &lt;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gt; 서명식 (10.9, 평양)</li>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4차회의 (12.24, 베이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회 평양별철 국제상품전람회 (5.17~20)</li> <li>○ 제6회 중국 지린 - 동북아 투자 무역박람회 (9.2~6, 창춘)</li> <li>♣ 제2회 중국 동북 (12+1)도시 라운드 테이블 회의(9.27, 지린) - &lt;압록강경제 합작실행구&gt; 건설 북한과의 경제협력 추진 논의</li> <li>○ 제6회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10.18~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원양어업 협회와 북한 공동어획협회, &lt;조선동부해역 어획합작협약&gt; 서명식(4월)</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 61차 회의 (7.9, 베이징)</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62차 회의 (11.16, 베이징)</li> </ul>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10		○ 중국 상지공사, 북한 라신타별구 투자협약서 서명식 (12.20, 베이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훈춘(琿春) - 나진 간 도로 건설 착공식 (6.9)</li>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9차 회의 (10.12~21, 창춘)</li> <li>♣ 조·중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 협조에 관한 회의 (11.28~12.2,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공동지도 위원회 제2차 회의(6.8, 선양)</li> <li>♣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라선 경제무역지구대 착공식(6.9)</li> <li>♣ 중국자관성 북한 라선시 간 조·중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관리 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 (7.26~28, 창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해양과학기술협력 제15차 회의(7.5, 베이징)</li> <li>○ 조·중 기상과학 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6차 회의 (10.21,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차 평양봄 철국제상품전람회(5.16~19)</li> <li>○ 제1차 라선국제 상품전시회 (8.22~25)</li> <li>○ 제7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 투자무역박람회 (9.6~11, 창춘)</li> <li>○ 제7차 평양기울철 국제상품전람회 (10.17~20)</li> <li>♣ 조·중 경제무역 문화박람회(명목 조인식)(12.1, 단둥) - 2012년 조·중 경제무역문화 박람회 6월 개최와 무역·문화·예술 여행 등 4개 분야 업무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베이징신 위통신산업집단공사 대표단 방북(2.1)</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63차 회의 (9.6, 평양)</li> <li>○ 중국 화전집단 공사 방북 (10.25~29)</li> <li>○ 북한 전자공업 실무 대표단 방중(12.15)</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 협조에 관한 회의 (4.19~23, 베이징)</li> <li>○ 조·중 &lt;만포-지안 국경다리 공동 건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gt; 서명식 (5.10,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북한 중국상회&gt; 결성식 (4.27, 평양) - 북한에서 투자 무역하는 50여 개 중국기업 조직</li> <li>○ 중국 국가공상행 정관리총국 대표단 방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5차 회의 (2.23, 베이징)</li> <li>○ 북한 조선과학 기술총연맹 대표단 방중 (6.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4~17)</li> <li>○ 제2차 라선국제 상품전시회 (8.20~23)</li> <li>○ 제8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 투자무역박람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대중화국 제집단 주식 일행 방북(5.4)</li> <li>○ 중국 농업부 대표단 방북 (10.3~4)</li>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64차 회의</li> </ul>

I
II
III
IV
V
VI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수평발전소 홍수방지 보수 공사 준공식 (8.30)</li>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50차 회의 (10.10~19, 평양)</li> <li>♣ 조·중 나진·원정 도로 개통식 (10.26, 라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8~31)</li> <li>○ 북한 국가품질감 독위원회 대표단 방중 (6.30)</li> <li>♣ 북·중 합영기업 동백인쇄공장 개업식(7.25)</li> <li>○ 조·중 공동지도 위원회 제3차 회의(8.14, 베이징)</li> <li>○ 조·중 경제구역 투 자 설 명 회 (9.26, 베이징)</li> <li>♣ 조·중 국외 투자협력회의 (10.14) - 북한 국가전람국 국장과 북한의 46개 기업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과학원 대표단 방북 (9.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6~11, 창춘)</li> <li>○ 제8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9.24~27)</li> <li>○ 제1회 조·중 경제·무역·문화 여행 박람회 (10.12~16, 단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2~20, 베이징)</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51차 회의 (9.5~13, 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이치자동차 (一汽)와 라선개발구정부, 투자의향서 서명식(9.12) - 라선에 자동차 제조공장 건립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 제7차 회의(1.9, 평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3~16)</li> <li>○ 제3차 라선국제 상품전시회 (8.19~23)</li> <li>○ 제9차 중국 지린 -동북아시아 투자무역박람회 (9.6~11, 창춘)</li> <li>○ 제9차 평양추계 국제상품전람회 (9.23~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중 수력발전 회사 이사회 제65차 회의 (10.14, 평양)</li> <li>♣ 조·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 기념 연회 (11.24, 평양)</li> </ul>

	건설·교통	교역·투자	과학기술	박람회	기타
2013				○ 제2회 조·중 경제·무역·문화· 여행 박람회 (10.10~14, 단둥)	
2014. 1~6	♣ <조·중 원정·취 안허(圖河) 신 국경대교 공동 건설·관리 및 유지에 관한 협정> 서명식 (6.27, 평양)	♣ 북한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착공식(1.16) - 북한 국가경제 개발위원회 위원장 대중화 국제투자그룹 유한공사이사국 주석 일행 등이 참석  ♣ 중국 단둥 국제 상회와 북한 중국상회 기업가 경제 무역 교류 좌담회(2.16, 단둥)	○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 방중 (5.13~19)	○ 제17회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12~15)  ○ 제3회 조·중 경제 무역·문화·여행 박람회 비망록 서명식 (6.15, 단둥) - 10.16~20 개최 합의	

<표 IV-5>에서 ♣로 표시된 것이 『로동신문』의 보도에서 누락된 것이다. 누락된 것을 『로동신문』의 보도에 추가하면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3년의 경우 『로동신문』의 보도만 보면 교류 횟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중국 측 자료를 함께 보면 2012년보다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연도의 평균치와 별반 차이가 없다.

북한경제가 시기별로 다소 부침이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경제관계가 정치적 요인으로 크게 영향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있는데 그것은 2013년의 경우 정부대표단의 교환이 없었다는 점이다. 매년 북·중 간에는 이런저런 분야의 정부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데 2013년과 2014년 상반기까지 그

I
II
III
IV
V
VI



런 방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교류 외에 다른 특이사항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는 7월에 북한의 금속기계성 대표단이 방중했고 9월에는 중국과 품질인증분야에서 협정을 조인했다.

2004년의 경우에는 8월에 중국 인민은행과 10월에 북한 중앙은행이 평양과 베이징을 상호 방문했고 11월에는 홍콩 앰페러그룹이 방북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대안친선유리공장 착공식이 거행되어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5년의 특이한 교류는 1월 홍콩 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6월 랴오닝성 친선대표단, 6월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대표단, 7월 지린성 경제무역대표단과 중국 방직 및 피복공업 대표단, 9월 중국 해관총서, 10월 중국 서광자동차집단, 10월 북한 철도성 대표단, 11월 북한의 지진국 대표단이 각각 상대국을 방문했다. 2005년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 시기에서 상호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해였다.

2006년에는 3월에 북한의 조선농업과학원 대표단이 베이징을 찾았고 5월에는 중국 개발은행 대표단과 중국 민용항공총국 대표단, 6월 중국 온주상회, 9월 중국 광수집단유한공사, 12월 베이징 보동지원무역 유한책임공사 인사들이 평양을 다녀갔다. 5월에는 북·중 간에 검역분야에서의 협조를 문서화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2007년 북·중 간 정기적인 교류 이외의 예외적인 교류로서 3월과 10월에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대표단이, 8월에 중국 개발은행 대표단과 10월 중국 선급사 대표단이 상호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2008년에는 1월 북한의 철도성 대표단이, 5월에는 중국 방직공업협회 대표단이 베이징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고 6월에는 북한의 세관총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찾아 중국의 해관총서 대표단과 협정을 조인했으

며 같은 달에 북한의 품질감독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중국의 민용항공총국 대표단과 교통운수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9월에는 홍콩 중화장상연합회 대표단도 평양을 방문했다.

2009년의 경우는 6월에 북한의 민용항공총국 대표단이 방중했고 8월에는 북한의 체신성 대표단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2010년의 예외적인 교류는 8월에 북한의 품질감독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 유일하다.

2011년에는 9월 국제철도협조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의 철도성 대표단이, 12월에 북한의 전자공업실무대표단이 방중했고 중국 측에서는 2월에 베이징신위통신산업집단공사 대표단이, 10월에 화전집단공사 대표단이 방북했다.

2012년의 부정기적인 교류로서는 5월에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대표단이, 10월에 중국 농업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각각 북한 측 상대기관과 양해문을 체결했고 6월에는 북한의 품질감독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2013년에는 7월 중국 상하이(上海) 법률 및 투자 대표단과 금지부 동산개발유한회사 대표단이 평양을 찾은 것이 유일한 예외적 교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외적인 교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실행되어 온 교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호 방문이 중단된 이유의 하나가 불편해진 양국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2004년에 수력발전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수력발전이사회는 2005년 3월과 11월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이는 2004년에 열리지 못한 회의를 대체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다. 주목되는 한 가지는 조·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2005년에 제1차 회의를 가진 뒤 매

I
II
III
IV
V
VI

년 빠짐없이 열렸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열리지 않았다. 2년에 걸쳐 열리지 않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를 자극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일시적 불편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연도인 2006년과 2009년의 경우 2006년에는 조·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가, 2009년에는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매년 다루어온 현안을 당해 연도에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불편해진 북·중관계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주목되는 변화는 2013년에 연례적인 회의만 개최된 점이다. 이 해에는 다른 연도에 간혹 있었던 경제 분야의 정부 조직 간 교류가 일체 없었고 이런 흐름은 2014년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은 최근 북·중관계가 불편해졌다거나 변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네트워크

### 가. 인적 네트워크

2013년 12월에 전격 처형된 북한의 장성택은 친중파로서 중국 정부에 넓은 인맥을 가진 인사로 흔히 평가되어 왔고 중국 정부에서는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북한 정계에 발이 넓은 대표적인 친북파로 꼽혀왔다. 이 사람들이 넓은 인맥,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 직업상 경력 등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다른 이유에서 빈번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는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는 뜻이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직책상 타인과 개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직책을 떠나서도 그 네트워크가 유지되어야 그 개인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직책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로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직책상 생긴 네트워크에 불과하다.

그런데 『로동신문』에 보도된 교류로 볼 때 북한 측 인사든 중국 측 인사든 적어도 경제 분야의 교류에서는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가 발견되지 않는다. 전부가 직책에 따른 교류일 뿐 직책과 무관한 교류는 없다. 제V장에서 언급되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중국의 ‘항일혁명열사 가족’의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의 전형이다.

경제 분야로 보면 매년 북한과 중국에서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린다. 평양의 경우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이 연회는 보통 내각 부총리, 외무성 부상, 무역성 부상, 문화성 부상, 조·중친선협회 부위원장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주북 중국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이 참가한다. 이 모임조차 모두 직책에 따른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초대되는 경우는 없다. 경제 분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중친선협회의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중국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보건상이 당연직처럼 맡고 있다. 보건상이 바뀌면 친선협회 중앙위 위원장도 바뀐 보건상이 맡는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 발견되는 인적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방직공업협회 대표단은 통상 평양에서 개최되는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매년 참석하여 북한 정부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를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 속했던 인사들은 경제적 이익상 지속적으로 북한 측 인사들과 교류하는 경향이 강해 특정의 연

I
II
III
IV
V
VI

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둥이나 창춘, 평양이나 라선 등지에서 개최되는 각종의 경제 관련 전람회에도 자주 참석하는 양국의 인사들도 마찬가지이다.

## 나. 조직 간 네트워크

『로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조직 간 상호 방문이 눈에 띈다.

가장 의미가 큰 첫 번째의 상호 교류는 정부 경제무역대표단의 교환이다. 경제무역대표단은 1년에 한, 두 차례 상호 방문하는데 북한 측의 경우 보통 무역성 부상이, 중국 측은 상무부 부장조리가 단장이 된다.

2004년 12월에는 립정만 무역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경제무역대표단이 방중하여 양국 간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그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은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관계 고위 인사나 대표단 파견을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를 매년 개최하는 위원회로 제도화한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4년에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증하고 무역규모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하여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투자보호협정 체결 등 현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2005년 3월 22일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북한 측에서 박봉주 내각총리,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립정만 무역상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원자바오 총리, 리자오싱 외교부장, 웨이젠궈(魏建國) 상무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은 투자 위험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 마련함으로써 양자간 무역·

투자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앞서 3월 15일~19일에는 제1차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리용남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경제무역대표단이 참가했다. 제2차 회의는 2006년 5월 평양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마슈홍(馬秀紅)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했다. 2007년 9월 제3차 회의와 2009년 12월의 제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2008년 10월 제4차 회의와 2010년 11월의 제6차 회의는 평양에서 각각 열렸다. 2011년과 2012년에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2013년 1월에서야 제7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의 핵심은 경협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 간 정례적·제도적 경제협의를 채널을 통해 현안해결과 경협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2013년의 회의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 사무청사 건설과 관련된 문건도 조인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 이외에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 9월과 11월에는 중국 푸젠성(福建省) 투자시찰단이, 동년 11월에는 쓰촨성(四川省) 투자시찰단이 대북 투자환경 조사 등을 위해 방북했다. 쓰촨성 투자시찰단의 경우는 북한의 산업 및 상품별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투자 및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무역 투자 파트너 발굴 등을 목적으로 북한 측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좌담회, 평양 소재 대형 지하상가 견학, 인근 지역 관광 등의 일정을 가졌다. 동 사절단은 16명으로 구성되어 농업, 어업, 광업 및 백화점업의 약 10여 개 북한의 업체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며 이들을 초청한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성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라고 한다.<sup>18</sup>

2005년 7월에는 텐쉐런(田學仁) 상무 부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린

I
II
III
IV
V
VI

성 경제무역대표단이 방북하여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하여 림경만 무역상 등을 만났다.

북한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이다. 2005년부터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는 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 행사는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북한은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무역대표단이 매년 이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무역과 함께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중국 상무부, 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진흥 지도소조 판공실, 지린성 정부가 주관하고 일본, 몽골,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중국 지방정부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북한은 전통식품, 한약재, 공예품 등을 출품하며 상품전시 이외에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북한은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역, 외자유치 확대, 선진기술정보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sup>19</sup>

두 번째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서 중국기업과의 교류이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로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 봄철 전람회는 1996년에, 가을철 전람회는 2005년에 각각 시작됐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1년에 2회 개최된다. 북한은 국제상품전람회가 “나라들 사이의 대외무역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 하나”라고 보고 매우 중시한다.<sup>20</sup> 전람회는 북한의 ‘조선국제전람회

---

<sup>18</sup> KOTRA 동북아팀/청두 한국무역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사친성 관계자 면담,” (2004.11.16, 12.10), <<http://www.globalwindow.org/search/search.jsp>> (검색일: 2014.7.18).

<sup>19</sup>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756호 (2005.9.2.~9.8).

<sup>20</sup> 전승화, “무역회사들이 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하여 상품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13년 제1호 (루계제158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2014년 3월 18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단둥(丹東)시위원회에 따르면 단둥을 방문한 북한 조선국제전람회 박용식 사장이 판상(潘爽) 단둥시 부시장을 만

(Korea International Exhibiton Corporation: KIEC)’가 주최하고 무역성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이 지원한다.

전람회의 주요 참가주체는 중국기업이다. 최근에 올수록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해지고 있으나 참가하는 외국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대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는 ‘2005년 중국 국제특허기술 및 제품교역회’를 개최하여 환경, 건강, 의료, 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제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2011년에는 라선특별시에서도 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여러 국가의 110여 개의 단위에서 제품을 출품했다.<sup>21</sup>

2014년 제17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 전람회에는 중국,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이탈리아 등의 300여 개 회사들이 참가했다. 출품되는 제품은 주로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 설비, 운수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북한에서 보통 내각 부총리, 무역상과 부상,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상업회의소 소장, 조선국제전람사 사장 등이 참가한다. 중국에서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제상회대표단이 때때로 참가한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제상회는 1952년 5월에 설립된 조직으로 타국과의 무역 및 투자, 기술 도입 등 경제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라는 명칭만 사

---

난 자리에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나서 우리 유관 부문은 곧바로 국가 지도자에게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국가지도자도 이 행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4년 3월 18일.

<sup>21</sup> 『로동신문』, 2011년 8월 23일.

I
II
III
IV
V
VI



용하였으나, 1988년부터는 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OIC)라는 명칭도 병용하고 있다.<sup>22</sup>

세 번째는 수력발전회사 이사회를 통한 만남이다. ‘조·중 수력발전회사’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수계의 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1955년 4월에 설립된 회사이다. 일제 시 건설된 수풍발전소(70만kW)를 비롯하여 운봉발전소(40만kW), 태평만 발전소(19만kW), 위원발전소(39만kW)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기 50%씩 분배·사용하고 있는데,<sup>23</sup> 매년 평양 또는 베이징에서 교대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대개 공동으로 건설한 발전소 운영 문제 및 압록강 상·하류지역의 신규 발전소 추가 건설문제, 공동운영 발전소들의 전년도 사업 결산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력발전회사의 이사장은 북·중 양국 각 1명씩인데 당연직으로서 북한 측 이사장은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중국 측 이사장은 국가전력망 공사 부총경리이다. 이사회에는 각각 이들을 단장으로 한 양국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네 번째는 과학기술 부문의 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57년 12월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58년 ‘조·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창설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해 왔다. 초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

<sup>22</sup>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803호 (2006.8.18.~8.24).

<sup>23</sup> 수풍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절반씩 나눠 사용해 왔지만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는 생산된 전력 전량이 평양시로 공급된다는 보도도 있다. 『연합뉴스』, 2012년 8월 30일.

북한은 90년대 후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한 이후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발전을 강조, 중국과 IT 등 각 부문별로 각종 협정서·의정서 체결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교류 협력 활동을 확대·발전시켜 왔다.<sup>24</sup>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쌍방은 도합 2,000여 항목의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야금, 화학 공업, 방직, 공업, 농업, 수리, 전력, 교통, 건축, 의학, 상업과 무역 등 많은 영역에 이른다.

위원회 회의는 매년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며 열리는데 2007년 제42차, 2009년 제43차, 2010년 12월에 제4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보통 북한 측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국가과학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 측에서는 과학기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한다. 회의가 끝나면 보통 회의 의정서가 체결되고 의정서는 농업과 전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의학, 해산물 양식기술 등에서의 협력 내용을 담게 된다. 동시에 중국 과학기술부가 북한 국가과학원에 컴퓨터와 관련 설비, 과학기술 도서와 잡지 등을 기부하는 약속도 이루어진다.

2002년 이후 양국 간 과학원 및 지진, 기상, 수문, 해양, 정보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보호, 농업, 건축 등 부문과 과학연구 단위의 교류가 활발해져 해당 부문 과학기술합의서들이 새로 조인되었다. 합의서에 따라 쌍방은 자료의 상호 교환, 과학기술정보연구, 문헌검색, 자료처리, 예보분석 및 과학자들의 왕래, 학술 교류와 기술자 양성 등 측면에서

<sup>24</sup> 2005년 4월 11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로동신문』, 2005년 4월 12일.

I
II
III
IV
V
VI

여러 가지 형식의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양국 정부의 과학기술부, 지방의 관련단위, 과학기술협의회 및 대중단체, 기업 등의 상호 방문은 30여 차례나 된다고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의 과학원 대표단도 상호 방문한다. 2006년 6월에는 북한 조선과학원 부원장 리의구가 대표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바이춘리(白春禮) 상무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과학원 대표단도 13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조선과학원은 제3세계 과학원 대회나 보통 선양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첨단기술 박람회에 원장이나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가하여 중국 측 관련인사와 조우한다. 2003년 10월의 제3세계 과학원 대회와 2005년 9월의 박람회에는 조선과학원 원장 변영립이, 2009년 9월의 선양 박람회에는 조선과학원 부원장 리성욱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했다.

이 밖에도 2004년 5월 중국과학자협회 부주석 쉬산옌(徐善衍)이 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고 2003년 4월, 2007년 3월과 10월에는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과학기술 관련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를 보이는 것은 기상관측과 해양과학기술 부문이다. 북한의 기상수문국과 중국의 기상국 및 국가해양국은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관련 과학기술의 정보교환 등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1946년 7월 기상, 수문, 해양,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측과 예보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자원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 중앙기상대로 발족했다. 중국은 기상국과 해양국이 분리되어 있으나 북한은 기상수문국이 기상과 해양을 모두 담당한다. 따라

서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중국의 양 기관과 정기적으로 기상과학기술 및 해양 부문 과학기술 협조와 교류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기상 부문에서는 2003년에 양국의 기상국 사이에 제12차 회의가 열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기상수문국을 방문하여 “기상수문사업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만큼 연구사, 예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sup>25</sup>

또한 기상수문국은 부정기적으로 중국의 수리부와도 교류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문사업 협조를 위한 현안이 있을 때 양국의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중국 측이 평양으로 가서 회담을 할 때는 부국장이나 부부장이 단장으로 참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북한에서 대표단이 중국으로 갈 때는 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다섯 번째는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에서의 교류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0년 5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운항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경하천운항협조협정을 체결하여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여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2003년에 제42차 회의가, 2013년에 제5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보통 전년도 국경하천 운항 관련 사업결산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 등 제반 운영문제를 협의한다. 즉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로조사 및 시설물 설치, 연안지역의 농산물·생필품 수송 문제 등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는 북한 측에서 육해운성 대외사업국장이,

<sup>25</sup> 『로동신문』, 2014년 6월 10일.

I
II
III
IV
V
VI

중국 측에서는 라오닝성이나 지린성의 교통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가한다. 북한에서의 회의는 평양에서, 중국에서의 회의는 선양이나 창춘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여섯 번째는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이의 상호 교류이다. 국가경제개발을 위한 초석의 하나는 생산의 규격화와 표준화인데 이를 이끌고 있는 기관이 품질감독국이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국가품질감독국은 “모든 생산물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에서 적용하던 종전의 기준을 현실적 조건과 국제기준에 맞게 규격화,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다.<sup>26</sup> 북한의 규격과 표준을 총괄하는 국가품질감독국은 중국과 품질인증 및 국가표준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그 일환으로 2006년에는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이에 ‘검사·검역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양국의 검역분야 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북한의 국가품질감독국은 2011년 4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승격되었다.<sup>27</sup> 북한의 위원회가 내각 산하이기는 하지만 성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라는 점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품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외에 간헐적으로 북한 민용항공총국과 중국 민용항공총국, 북한 세관총국과 중국 해관총서, 북한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나 개발은행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민용항공총국의 경우는 정기노선 개설과 관리 등에서 협의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

<sup>26</sup> 『조선신보』, 2006년 1월 23일.

<sup>27</sup> 『조선중앙통신』, 2011년 4월 17일.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1959년 2월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그 해 4월에 평양과 베이징 간, 2000년 4월에는 평양과 선양 간 노선을 각각 개설했다.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고려항공이 베이징, 상하이, 선양, 하얼빈(哈爾濱), 옌지(延吉)를 주 2회, 다롄(大連)을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항공공사는 주 4회 베이징과 평양을 연결하고 있다. 양국 간에 사업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왕래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편 증편 등을 비롯해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지는 현실의 반영이다. 또한 중국은 공항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도 북한에 전수하고 있다. 2012년 10월 18일에는 민항총국 안재원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6명이 중국 선양 국제공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2011년 9월에 착공한 평양 순안공항의 터미널 개조 및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었다.

세관총국의 경우도 양국 사이의 교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우대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협이가 필요할 경우 이루어진다. 2008년 6월 3일에는 지영식 세관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세관분야에서의 상호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sup>28</sup>

은행 간 교류는 대금 결제 방식이나 경제개발에 관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협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과 중국은 대금 결제와 자금이동을 위해 2004년 10월 ‘조선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를 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을 규제하는 외국환 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전용계

28. 『조선중앙통신』, 2008년 6월 4일.

좌 개설 등과 같은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sup>29</sup> 2006년 5월에는 첸위안(陳元)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개발은행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의 관계자들과 면담한 바 있다. 중국 개발은행은 중국 정부의 개발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

<sup>29</sup> 이종운·홍이경,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2013), pp. 83~84.



## V. 사회문화 분야 인적 교류





# 1. 개황과 추이

## 가. 전반적 추세

### (1) 교류추이 개관

중국과 북한의 인적 교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009년까지 10만 명 선을 유지해 오다 2010년부터 연간 15~20%의 속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은 취업목적이 전체의 43.7%인 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명 넘게 증가했으며,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5만 5,000명(26.6%)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친지 방문은 200명에서 300명(0.15%)으로 늘었으나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3,000명(1.5%)으로 전년 4,500명(2.5%)에 비해 1,500명이 오히려 줄었다. 취업과 비즈니스 목적의 중국 방문이 전체의 70.3%를 차지하는 반면 관광이나 친지 방문, 문화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sup>30</sup>

한편, 중국 쪽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2009년 9만 6,000명, 2010년 13만 1,000명, 2011년 19만 4,000명, 2012년 23만 7,000명 등으로 최근 3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대체로 관광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23만 명의 북한 방문 중국인 가운데

<sup>30</sup> 『노컷뉴스』, 2014년 1월 24일, <<http://www.nocutnews.co.kr/news/1173154>> (검색일: 2014.5.23).

I
II
III
IV
V
VI

약 25%에 이르는 5만 1,000~6만 1,000명이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2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의 금강산과 평양, 개성을 방문하는 패키지가 시작됨으로써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었고, 중국의 옌벤(7월)과 상하이(7월), 다롄(10월) 지역의 여행사들도 항공편으로 평양과 금강산을 여행하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관광목적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광목적의 중국인 북한 방문은 급증하는 추세이며 북한도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인 북한 관광객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간 인적 교류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분류하고 있는 통계는 회의참석 및 사업, 취업, 친인척 방문, 관광 및 레저,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사회문화 분야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문화 분야는 예술, 교육 및 학술, 체육, 보건의료, 관광, 사회단체, 언론출판 등으로 정치 및 경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중국 친지 방문이나 관광·레저 목적의 중국 방문은 양적 규모에서 크지 않은 편이다. 북한 주민의 중국 친인척 방문 비중은 0.15%로 매우 작은 반면, 중국인의 북한 친인척 방문은 매우 활발하다. 관광 및 레저를 위한 방문도 북한 주민은 1.5% 밖에 되지 않은 반면 중국인은 25%를 차지한다. 친인척 방문이나 관광 및 레저는 북한 쪽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적지만 중국 쪽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북한-중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식 교류는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5%를 차지하는 ‘기타’ 항목에 북한의 예술단, 대학, 사회단체, 언론 출판

분야의 중국 방문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는 중국 쪽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형태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중 간 인적 교류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수치에 못지않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 인적 왕래도 있다. 공식 통계는 북·중 간 인적 교류를 연간 5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중국 현지의 평가에 의하면 단둥지역으로 연간 140만 명(복수 방문 포함), 조선족 자치구 지역으로 60만 명(복수 방문 포함) 정도로 연간 총 200만 명이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것으로 추산한다.<sup>31</sup> 물론 인적 왕래 가운데 90~95%가 중국 쪽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이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북·중 변경지역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왕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통계에는 친인척 방문 비중이 낮게 되어 있지만 비공식 인적 왕래 가운데는 친척 방문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친인척 방문을 소규모 장사 목적과 병행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sup>32</sup> 중국 동북지방의 200만 조선족 가운데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86만 조선족의 경우 90% 정도가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sup>33</sup>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재정을 보증할 친척의 초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북·중 간 사회문화 인적 교류에는 공식 통계에

<sup>31</sup>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상무국 및 통상구 사무실 관계자 면담(2007.10.29). 공식 통계로 드러난 수치는 중국 중앙정부가 집계한 자료이며 조선족자치구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통계를 별도로 갖고 있다.

<sup>32</sup> 중국 연변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6인 인터뷰(2007.10.29). 그러나 중국 조선족 자치주정부 상무국은 공식무역 이외의 친척 방문으로 가져가는 물품의 양은 극소량이라고 평가했다. 상무국 관계자 인터뷰(2007.10.29).

<sup>33</sup> 중국 연변대학 북한 전문 학자들의 견해 (2007.10.29, 중국 연지사).

잡하지 않는 교류와 탈법적으로 진행되는 교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 숫자만으로 인적 교류를 평가하는 것은 실제로 진행되는 북·중 인적 교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중 양국 간 문화 교류는 양국의 정치 및 문화 행사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59년 2월 21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53년 11월에 체결한 ‘조·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1958년 9월에 결성한 ‘조·중친선협회’와 ‘중·조우호협회’, 1959년 2월 체결한 ‘조·중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1년 7월에 맺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등의 기념일에 북·중 양국은 문화예술인과 사회단체 지도자, 교육자, 체육인, 출판인 교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59년 2월 21일 양국이 문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문화 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인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 매년 10여 개의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북·중 간 예술단체들이 가장 큰 규모로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수립일(9·9)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7·27)에는 예술공연과 전시회, 사진전 등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탈냉전기 북·중 양국은 혈맹관계를 탈피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의 빈번한 상호방문 등 인적 유대관계의 복원으로 양국 간 상호 협력채널이 고위층에서부터 복원·가동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가 냉각상태로 접어들었다가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1999년 6월 김영남의 중국 방문으로 다시 회복

되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경제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인적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2005년 3월 박봉주 북한 총리의 중국 방문 및 ‘투자장려·보호 협정’ 체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2005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순(南巡) 방중(2006년 1월),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중(2006년 3월)이 이어지면서 사회문화 교류가 급증하였다.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북·중관계가 새로운 시대(新時期), 새로운 형세(新形勢), 새로운 수준(新水平)의 3신(三新) 국면을 맞고 있다며 전면적인 상호 경제무역 협력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힘입어 2005년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이 12만 5,000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 즉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표현해왔다. 양국은 여전히 외형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과거 공동항일(共同抗日)의 경험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등을 바탕으로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의 전환점은 아무래도 2009년 하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2009년 9월 18일 다이빙귀의 북한 방문과 뒤이은 2009년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2009년이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2009년 7월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안정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한반도 문제의 중국식 해법을 제시하며 적극적 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하였다. 중국의 무상 경제원조와 기술·교육 분야의 지원, 관광산업 관련 등의 협정이 체결되고 중국 측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신압록강 대교 건설이 제시되어 양국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 시기부

I
II
III
IV
V
VI

터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관광이 활기를 띠고 2012년에 처음으로 항공편 관광이 시작되어 양국의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 (2) 분야별 교류 현황

### (가) 문화예술 부문 교류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문화 부문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 교류다. 북·중 두 나라 사이 문화 부문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은 빈번하며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문화부는 매년 빠짐없이 정부문화대표단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문화성도 매년 문화 부문 관계자 또는 정부문화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을 방문한다. 북한과 중국 정부는 ‘3개년 문화 교류 집행 계획서’를 체결하고 매 3년 마다 조인식을 거행하며 이에 근거하여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중국의 문화부 대표들이 만나는 고위급 교류 행사다.

양국 문화 부문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으로는 2003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의 ‘2003~2005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가 조인되었으며, 2006년 4월 10일 평양에서 ‘조·중 두 나라 정부 사이의 2006~2008년도 문화 교류집행계획서’가 조인되었다. 2006년의 경우, 중국 문화부 부장조리 덩웨이(丁偉)가 중국 정부 문화대표단 일행 5명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전현찬과 두 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2006~2008년 중·조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 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에는 베이징에서 '2009~2011년도 문화 교류집행계획서'를 조인하는 행사를 갖고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전영진 부위원장, 한철 문화성 부상 등이 주도한 가운데 중국의 자오샤오화(趙少華) 문화부 부부장, 허쥘(賀鈞)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비서장 등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2012년 2월에도 '2012~2014년도 문화 교류 집행계획서'를 승인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1959년)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가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에는 동 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양국 문화 부문 고위급 간부들의 상호 방문이 빈번하였다.

둘째는 예술단체들의 상호 방문 교류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예술단을 파견하여 참가하는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매년 빠짐없이 공연제목을 선정하고 중국예술단을 조직하여 북한에 파견하여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 있으며 예술축전의 인기를 얻고 있다. 동방가무단, 상하이발레무용단, 상하이교향악단, 중국교향악단,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가무단 등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에서도 여러 차례 예술단을 파견하여 중국에서 열리는 예술축전에 참가하였다. 북한의 만수대예술단, 꽃파는 처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조선민족가무단, 국립교향악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등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으며 중국인들의 인기를 얻었다.

2012년 북한과 중국은 첫 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제작을 계기로 양국 영화인 간 교류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양에서의 약속'은 2012년 4월과 6월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시사회를 개최한 북·중

I
II
III
IV
V
VI



첫 합작영화로 대를 이어 북·중 양국이 지속적으로 우의를 쌓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의 약속’ 촬영을 위해 북한 당국은 이미 공연이 끝난 집단체조 ‘아리랑’의 참가자 10만 명을 다시 불러들이고 철거했던 공연 장치를 다시 설치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국 간 우의의 상징이 된 ‘평양에서의 약속’을 계기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북·중 간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의 피바다가극단은 2012년에 ‘꽃파는 처녀’ 중국 순회공연을 4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중국 문화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꽃파는 처녀’ 중국 순회공연은 2012년 5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창춘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16개 주요 도시에서 총 3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북한의 라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특구를 중심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중 양국 간 경제협력에 이어 문화 협력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2012년 10월에는 북·중 친선주간을 맞아 북한 만수대예술단의 음악 무용 종합공연이 단둥에서 펼쳐졌으며,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지에서 북한을 방문한 ‘조선영화상영주간’ 행사가 5일간 이어졌다. 북한의 만수대예술단은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중국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북한 국립민족예술단이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공연을 시작으로 6일 텐진(天津)에 이어 난징(南京), 상하이 등을 돌며 한 달 일정으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2013년 1월 25일부터는 북한 금성학원예술단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양국 간 우의의 상징인 신압록강대교 건설 노동자와 참전 군인을 위한 위문 공연을 펼쳤으며, 2014년 1월 21일에는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북·중 친선 설명절 합동공연’이 진행되었다.

셋째는 교예단의 상호 방문 교류다. 양국 간의 교예단 교류는 문화

예술 교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 교예단은 공연수준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묘기를 펼쳐 세계 교예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열리는 오고국제교예축전, 무한국제교예축전에 수차례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중국 교예단은 매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기간에 북한에서 공연을 실시하여 여러 번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무한교예단에서 배우들을 선발하여 리창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2014.9.10.~13.) 때 김정일을 위한 특별공연을 하기도 했다.

넷째는 양국 간 빈번히 진행되는 전시회 활동이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는 전시회를 자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예술가들이 방문·교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서 진행한 전시회에는 중국공예미술전시회, 중국유화전시회, 중국수예전시회, 중국수채화전시회, 중국중청년화가작품전시회, 마오주석기념당장화전시회 등이 있다. 북한이 중국을 방문하여 진행한 예술작품전시회에는 조선공예품전시회, 김일성로작 및 혁명활동그림(사진)전시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주년 그림(사진)전시회, 조선노동당창건 40주년 사진 및 그림전시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도서) 및 수공예품전시회 등이 있다. 2009년 6월 1일에는 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북·중 어린이들의 서예 및 그림 전시회가 만경대소년학생궁전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부문 일꾼들과 중국 상하이시 대외문화 교류협회 대표단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진전시회나 영화감상회는 전송기념일(7·27)이나 광복기념일(8·15) 또는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기념일 등에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한다. 2005년 4월에는 국방위원장 추대 12주년 기념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개최되어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I
II
III
IV
V
VI

주임조리, 해군 후근부 부부장과 공군지휘학원 부원장 등 군 관련 인사가 대사관을 찾아 북한의 최진수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5년 8월 11일에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를 진행하여 중국 외교부 선귀팡(沈國放) 부장조리, 해방군보사 샤오장핑(肖江峰) 부사장,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상무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북한대사관 인원들과 교류하였다.

전시회 중에는 김일성화 관련 기념행사와 축전에 중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북한의 문화인사들과 접촉하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명명 40주년 기념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 축전에 중국화초박람회 조직위원회대표단, 중국 하얼빈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대표단, 중국 연지 대동공사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대표단, 단둥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대표단, 단둥 서일공사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대표단,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시 원림관리처대표단, 저장성(浙江省) 이우시(義烏市) 대외경제기술복무센터대표단, 심전발전공사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교류가 국제대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005년 10월 2일~6일까지 진행된 제8차 베이징국제예술박람회에서 북한 미술작품들인 조선화 <백두산천지>(선우영 작), <남강의 겨울>(정착모 작)에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되었다. 2009년 1월 15일에는 대동문영화관에서 중국 예술영화 ‘따뜻한 정’ 감상회를 개최하여 김영남, 최태복을 비롯한 인사들과 근로단체 지도자, 성, 중앙기관,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이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 및 대사관 사람들과 영화를 함께 감상하였다.

## (나) 교육·학술 부문 교류

북·중 양국은 교육 교류협의를 바탕으로 대표단, 유학생, 교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2002년 11월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사이의 2002~2010년 교육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대학 간 교류를 지원하여 중국 베이징대학 등 12개 대학과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등 7개 대학들이 합의서를 채택하고 학교 간 교류 관계를 수립하였다. 교육 분야의 대표단 교류를 보면, 2005년 10월 조선 교육상 김용진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교육연단’에 참가하였으며, 중국 교육부 조우지(周濟) 부장이 대표단을 만나고 교육부를 대표하여 100대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교류 합의서에 의하여 지금까지 쌍방은 각종 교육대표단을 약 300차례 상호 파견하였으며 2000년 이후 30여 개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양국 간 유학생 교류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교류 합의서에 의하여 양국은 정부 장학생들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의 유학생 수는 매년 350명(본과생, 석사생, 박사생과 재교육반생 포함)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 교육부는 2008년 7월 22일, 2007년 말 당시 중국이 접수한 북한 유학생은 장기 유학생 703명, 단기 유학생 174명 등 모두 877명이라고 밝혔다.<sup>34</sup> 이 중 절대다수가 이공계, 농업 및 의학계통을 전공하고 있다. 중국에 와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은 연인원 3,500명에 이른다. 한편, 북한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국가 파견 유학생과 자비 유학생을 포함하여 2014년 9월 현재 120명 정도로 파악된다. 류홍차이 주북 중국대사는 북한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김일성

<sup>34</sup> 『연합뉴스』, 2008년 7월 22일.

종합대학에 62명, 김형직사범대학에 60명 등 두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베이징외국어대학, 상하이외국어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북한에서 단기연수 중인 인원들이다.<sup>35</sup> 2007년에는 70명 정도였고 절대다수가 ‘조선어’를 공부하는 어학분야의 학생들이었으며 지금까지 북한에서 공부한 중국 유학생은 총 1,500명으로 알려졌다.<sup>36</sup>

중국어 연수 프로그램으로 왕래하는 인원도 있다. 북한 교육성의 초청으로 매해 2명의 중국 한어교원이 평양외국어대학에 와서 1년간 교육사업에 종사한다. 평양외국어대학 외에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에 중문학부가 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중국어 선택과목이 있다. 그 외 평양외국어학교, 신의주외국어학교와 원산외국어학교 등에도 중국어반이 있다. 현재 북한에서 중국어를 선택하여 배우는 사람은 영어 다음으로 많다.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 측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5~7명의 대학 중국어 교원을 선발하여 중국으로 보내 6주간 중국어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매년 북한대학의 중문학부 학생 2명을 추천하여 중국에서 ‘한어교’ 세계대학생 중국어 경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처음으로 경연에 참가한 2명의 북한 학생들이 49개 나라 101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경연에서 각각 1등상과 2등상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는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

<sup>35</sup> 『연합뉴스』, 2014년 9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9/0200000000AKR20140909043700097.HTML?input=1179m>>.

<sup>36</sup> 주 평양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교육 교류 부분 참조,  
<<http://kp.china-embassy.org/kor/zcgx/jyj1/t308045.htm>>. 류샤오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2007년 4월 26일 평양에 갓 도착한 북한 유학생 44명을 대사관으로 불러 북한 유학생들 중 주의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지린 육문중학교도 대표단이 매년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2007년 12월과 2009년 10월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 연변대학과 통신과정을 개설하여 통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일도 하고 있다. 중국 지린 육문중학교는 북한의 창덕학교와 매년 친선모임을 진행한다. 1960년 친선 관계를 맺은 양교는 지난 10년간 매년 지린 육문중학교가 평양의 창덕학교를 방문하여 인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3월 31일에는 지린 육문중학 창립 90주년, 창덕학교 창립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창덕학교 강준호 교장과 지린 육문중학 한페이(韓非) 교장은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양교 간 여러 종목의 예술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두 학교 간 교직원, 학생들의 좌담회도 개최하였다.<sup>37</sup>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는 매년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몽골, 베트남, 프랑스 등으로부터 학생소년 야영단 참가자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8월 5일 제28차 입소식을 진행하였다.

학술분야에서는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와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북한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와 국가안전부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도 한다. 중국의 이 두 기관은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의 학술적 문제뿐 아니라 북핵문제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정책에 대한 의

<sup>37</sup> 창덕학교는 1907년 4월 1일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돈욱 선생이 설립하였으며 현재 1,000여 명의 학생과 9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다. 지린 육문중학은 1917년 5월 5일에 창립하였으며 현재 학생이 1,200여 명, 교원이 142명으로서 지린성 중점중학의 하나다. 김일성은 1923년 4월부터 1925년 1월까지 창덕학교에서, 1927년 1월부터 1930년 5월까지의 지린 육문중학에서 각각 공부하였다고 하며 두 학교는 1960년 2월 17일에 친선학교 관계를 체결하였다.

I
II
III
IV
V
VI

견을 교환하는 정치외교적 교류를 하고 있다. 2014년 5월 5일에도 푸멍즈(傅夢孜)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학술 교류를 진행하였다. 또 김일성고급당학교 대표단은 2007년 9월 25일~10월 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례로 2007년 10월 23일~27일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 (다) 체육 부문 교류

중국 국가체육총국과 조선 체육지도위원회가 ‘조·중 두 나라 체육 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에 정기적으로 조인하고 그 계획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매년 교류를 진행하는 체육대표단은 수십 개에 이른다. 2006년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샤오티엔(肖天)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체육대표단 일행 5명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조선 체육지도위원회와 ‘조·중 2007년도 체육 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조인하였다. 또한 중국과 북한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중 간 체육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선수단이 2013년 9월 중국 난징에서 진행된 아시아 16세 미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13년 9월 제27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에는 중국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년 11월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체육의 대중화, 체육과학기술 발전, 체육인재 양성, 체육사업 지원 등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는 기구로 출범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는

조직이다. 기존의 조선체육지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도, 시, 군 행정단위와 군·경기관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으며 잠재력 있는 체육인재를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외교와 국내적 결속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하다 2013년 12월 처형된 이후 최룡해 당비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체육에 대한 권력지도층의 관심을 감안할 때 스포츠 분야의 북·중 인적 교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관광 부문 교류

양국 간의 관광 교류도 2009년 양국이 양해각서를 맺은 이후 활기를 띠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2008년 하반기에 북한을 ‘중국 국민 단체 해외여행 목적지 국가’에 포함시킨 뒤 북·중 변방관광을 허용해 오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0년 2월 북한을 단체관광 허용 대상지로 정식 승인했다. 중국과 북한은 2009년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정부가 2006년 2월 이후 금지해 왔던 북한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4월 12일 중국 국가여유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395명의 관광단이 8일간 북한 단체관광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광둥 등 10개 성과 직할시의 18개 여행사가 모은 관광객들로 이뤄졌으며, 베이징과 선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단둥에서 열차편을 이용해 각각 평양에 집결한 뒤 단체관광을 시작하였다.

북·중 간 관광 교류는 대부분 중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형태이다. 2012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 1,000~6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sup>38</sup>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중국인

I
II
III
IV
V
VI



관광객이며 중국 관광객은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을 여행한 사람이 2만 4,000~3만 4,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엔지가 1만 5,700여 명, 훈춘·투먼(圖們)이 9,770명, 그리고 베이징이 1,890명으로 추산된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일반적으로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며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변경관광과 북한 내륙을 방문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은 나진, 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등의 접경도시를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되고, 일반관광은 평양,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개성 등 북한의 내륙지역 관광으로 진행된다. 관광 일정을 보면 변경관광은 도보와 차량을 이용한 무박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짧지만, 일반관광은 차량과 기차, 비행기를 이용해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일정으로 짜여 있다. 2012년의 경우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미화 2,169만~3,462만 달러)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의 25~4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석된다.

2011년 4월 6일~14일 김도준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관광 총국대표단이 중국에서 개최된 태평양아시아여행협회 총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였다.<sup>39</sup> 2011년 7월 말에는 중국강휘서안국제여행사 장군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관광단이 평양-서안국제항로를 이용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1년 9월 27일~30일 헤이룽장성 세일국제여행사 부총경리 겸 국제부장 전금화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중국 관광단도 평양-하얼빈국제항로에 의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열차관광도 진행되었는데 2011년 10월 8일 중국공산당 투먼시 위원회 상무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에 참가하여

<sup>38</sup>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 3.

<sup>39</sup> 『로동신문』, 2011년 4월 7일.

칠보산 열차관광을 시작하였다. 2011년 11월 4일에는 헤이룽장성 인민 대표대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하얼빈-금강산국제관광단이 전세 기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린성 훈춘시와 북한 라선시 간 자가용 관광코스가 북·중 간에 처음으로 상품화되어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항공편 관광이 시작됨으로써 중국의 북한관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연변천우국제여행사 총경리 지금녀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비행기에 의한 연지-금강산국제관광단’이 7월 12일~15일 평양과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또 7월 24일에는 중국 국제여유집 단상하이유한공사 이사장 펑이밍(馮一名)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상하이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상하이지역관광단’이 평양, 개성, 묘향산 등을 둘러보았다. 10월 2일에는 중국 다롄부려화국제여행사유한공사 총경리 김춘일을 단장으로 하는 ‘다롄-금강산국제관광단’이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금강산과 개성을 관람하였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중국의 관광객들을 직접 안내하며 양국의 관광 교류 증진을 독려하고 있다.<sup>40</sup>

중국의 『지린신문』은 2013년 1월 31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변경관광이 2013년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린성 연변아리랑여행사와 북한의 칠보산여행사 간 관광실무계약이 체결되어 이전까지 여름과 가을로 한정되었던 북한관광이 일 년 사계절 내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항공편으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사업도 진행되어 2013년 7월 21일 연지천우국제여행사유한공사 부총경리 박룡범을 단장으로 하는 연지-금강산국제관광단이 항공편으로 관광을 실시하였다. 2014년 3월 10일에는 중국과의 관광협

40. 『로동신문』, 2012년 7월 13일, 7월 17일, 7월 25일, 10월 3일.

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걸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국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2014년 5월 2일에는 중국 투먼시와 북한 남양시 사이에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어 관광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중국인 35명이 자전거로 투먼시를 출발하여 북한 함경북도 남양시로 건너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코스다. 중국 투먼시와 북한 남양시는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전용 열차의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다양한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관광도 시작했다. 라오닝성 단둥시가 2014년 6월부터 자가용으로 압록강 철교를 거쳐 북한으로 건너가 국경지역을 둘러보는 관광코스 운영을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에는 엔지-금강산국제관광단이 금강산과 개성, 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관광하였다.

#### (마) 보건의로 부문 교류

중국 위생부와 북한의 보건성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위생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조인하고 계획에 따라 위생치료분야의 교류와 상호 협조를 진행하며 격년에 한 번씩 정부대표단을 서로 파견하여 방문사업을 진행한다. 2006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위생부 가오치양(高強) 부장이 중국 위생부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보건상 최창식과 ‘2006~2008년 조중 위생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에 조인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을 방문하였다. 2005년 6월 1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상하이 안과학회 저인원 주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안과전문가 방문단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바) 출판·언론·통신 부문 교류

2003년 8월 6일~11일 중국 중화전국기자협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방송언론 분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였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조선기자동맹과 중화전국기자협회 사이의 친선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김상호 부위원장 등 관계 부문 일꾼들이, 중국 측에서는 서기처 서기 웨이밍상(魏銘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005년 5월 19일에는 김병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중국 국가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방송총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한 2005년 8월 10일에는 전성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문헌국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9월 19일에는 중국 기상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2005년 10월 8일에는 중국의 국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최양호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원산(劉云山) 당중앙위원회 선전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2005년 11월 11일에는 북한의 립원보 출판지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12월 6일에는 허충위안(何崇元) 인민일보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로동신문사 직원들과 대화하였다. 2014년 5월 19일에는 전일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방송언론에 관한 협의 및 교류를 진행하였다.

I

II

III

IV

V

VI

(사) 사회단체, 법률, 환경 부문 교류

‘중·조 문화 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북·중 두 나라는 출판, 라디오, 영화, 문물, 박물관 부문 간에 폭넓은 대표단 교류와 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국 간 매년 상호 방문하는 인원수는 수백 명에 달한다. 2005년 5월 21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안남도 친선대표단이 21일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9월 3일에는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22차 세계법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앙재판소 김병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법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200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10주년 기념행사에 여맹중앙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2003년 8월 12일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주석 펑페이윈(彭佩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여성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여맹중앙위원회 리영희 부위원장 및 직원들과 친선모임을 진행하였으며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참사 전보진도 함께 참석하여 양국 간 여성교류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다. 2005년 11월 18일에는 천재련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여성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동포녀성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상봉모임이 2003년 12월 1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17일에는 북한의 농근맹중앙위원회 강창욱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김경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재해감소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다. 2014년 5월 6일에는 김진범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교류를 진행하였다.

2003년 8월 1일에는 전 중·조우호협회 부회장 감야도의 아들 감화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관계 부문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2005년 10월 25일에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참전 55주년을 기념하는 연회와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차오강촨,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쑨충통(孫忠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장즈쥘(張志軍),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 리위(李玉), 외교부 부장조리 리진장(李金章), 중·조우호협회 부회장 페이지이(裴家義) 등 관계 부문 인사들이 초대되었고 북한 측에서는 중국 주재 북한 임시대리대사 김성기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하여 친선을 도모하였다.

#### (아) 기타

2007년 8월 31일 중국장애인연합회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장애인보호연맹(1998년 설립) 중앙위원회 인원들과 교류하였으며, 2014년 5월 12일에도 청카이(程凱)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장애인연합회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최근 들어 장애인의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런던에서 개최된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한 이후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청각장애인이 북한을 방문(2014.8.8.~12.)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의 장애인 교류는 장애인을 통한 서방세계와의 외교활동 강화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교류 강화보다는 국제무대 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거주하는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가족들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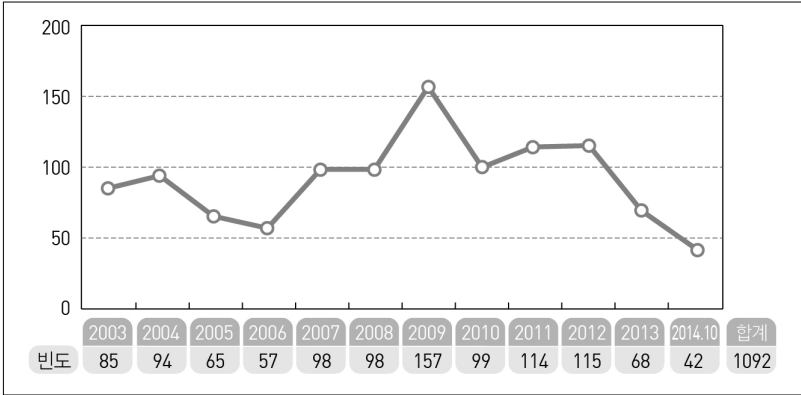
정례적 인적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북한의 당역사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북한으로서는 혁명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2014년 7월 4일~6일에는 김일성 주석 사망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의 항일혁명 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 가족, 채세영 가족, 강자화 가족, 상월 가족, 리재덕 가족, 리관린 가족 일행이 조선노동당 당역사연구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2014년 7월에는 김일성 주석 사망 20주기가 되는 때여서 항일혁명 연고자 가족들 뿐 아니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7월 5일),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단(7월 5일)이 평양을 방문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중국의 건축대표단도 2006년 6월 24일 평양을 방문하였고, 2009년 8월에는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에 참가하여 인적 교류를 진행하였다. 2014년 2월 20일에는 ‘조·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55주년을 기념하여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민용항공총국이 연회를 마련하였고 23일에는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도 중국 인사들의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 나. 시기별 지속성과 변화

지난 10년 동안 북·중 간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살펴보면 양국의 외교관계 설정 60주년을 맞는 2009년과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달라지고 있다. <그림 V-1>에서 볼 수 있듯이 『로동신문』에 기사화된 북·중 문화 교류 횟수만을 놓고 볼 때 2009년은 157회의 보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문화 교류가 진행되었다.

● 그림 V-1 연도별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 추이

(단위: 회)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65회, 57회으로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인적 교류가 적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가 수교 60주년을 맞았던 2009년에 문화 교류가 폭증하였다. 따라서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중국이 북한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2009년에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북한과 중국의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9월과 10월에 대대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가 급증한 것은 양국 간 수교 60주년을 맞아 여러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적극적 개입으로 선회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이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 문제를 두고 중국 내 전략파와 동맹파 간 치열한 갈등이 존재하였는데 후진타오 주재의 회의에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확고히 정리되었던 시점이 다.<sup>41</sup> 이러한 정책결정에 따라 2009년 9월 18일 다이빙귀의 북한 방문,

- I
- II
- III
- IV
- V
- VI



뒤이어 2009년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 계기를 만들었다. 2009년 9월이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2009년 7월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안정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한반도 문제의 중국식 해법을 제시하고 적극적 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하였다. 중국의 무상 경제원조와 기술·교육 분야의 지원, 관광산업 관련 등의 협정이 체결되고 중국 측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신압록강 대교 건설이 제시되어 양국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 시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는 관광이 활기를 띠고 2012년에 처음으로 항공편 관광이 시작되어 사회문화 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에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에는 115회의 문화 교류가 있었는데 이는 양적으로만 보면 낮은 수치는 아니다. 2012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란봉악단을 창설하여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술과 체육 교류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하던 북·중 문화 교류는 <그림 V-1>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들어 115회에서 68회로 급감하였다. 이는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2인자로 알려졌던 비중 있는 인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심각한 권력 갈등이 있었을 것이며 문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것처럼 긴장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도 급격히

---

<sup>41</sup>-International Crisis Group, *The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n North Korea* (2009.11.2).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중국과 깊은 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장성택이 제거됨으로써 북·중 간 교류는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양국 간의 사회문화 교류를 월별로 보면 대체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 있는 9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V-2>는 월별로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 패턴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4월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있어서 이 시기에 양국 간의 교류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양국의 정례적인 교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빈도에 있어서는 정권수립일이 있는 9월이 가장 활발하다. 아무래도 사회문화 교류가 정치적 행사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 행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가장 크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만, 교예단 공연,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공연, 체육 교류, 학술 및 언론 교류, 그리고 9·9절을 계기로 북한에 가는 관광객 등 전반적인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행사가 끼어 있는 9월에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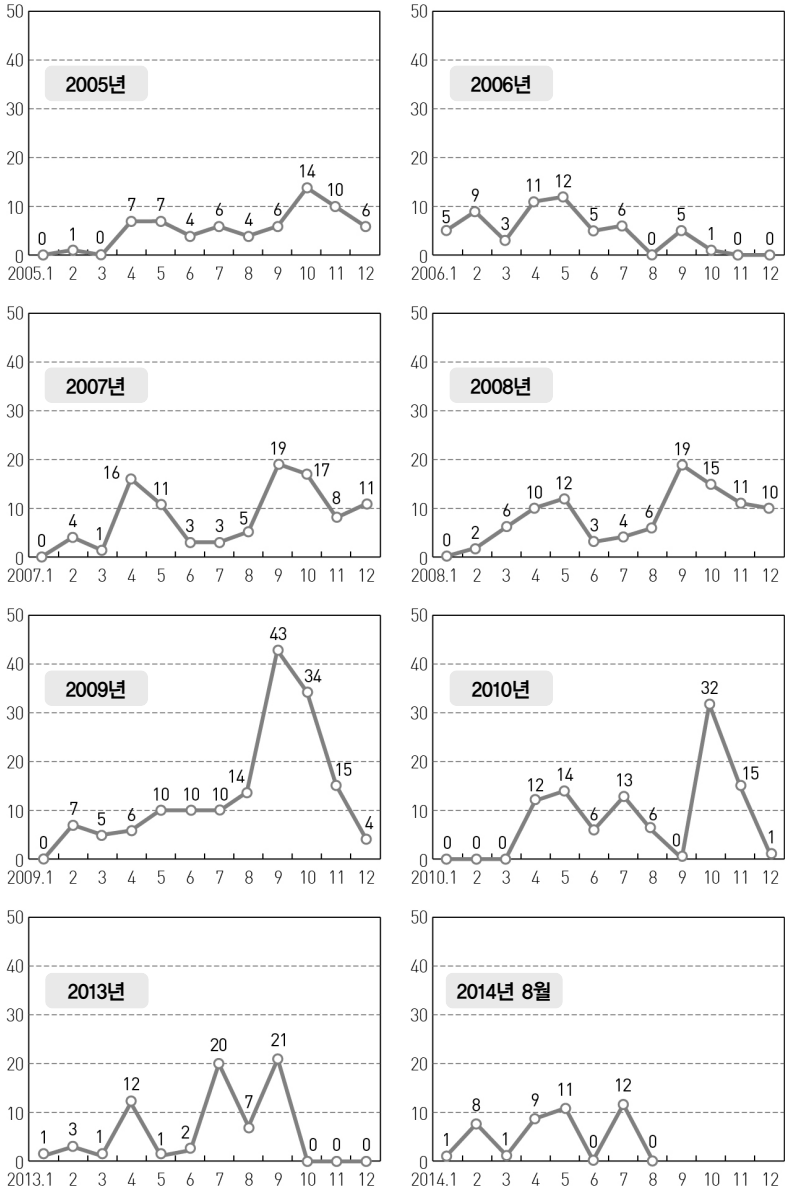
V

VI

---

그림 V-2 북·중 간 월별 사회문화 교류 패턴

(단위: 회)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가 2014년에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 규모가 줄었으며, 2014년 8월 말 현재 북한의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42회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4년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관계가 냉랭해진데다 2014년 7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 얼어붙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도 북·중 간 관계회복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본과 남북자 협상을 적극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경제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서 북·중관계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2014년 『로동신문』에는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원산에서 공연을 했다는 소식(7월)이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푸틴에게 축전을 띄웠다는 소식(8월), ‘백두-한라 자동차행진’과 같은 행사(8월) 등이 보도되면서 러시아에 관한 소식이 빈번하게 등장한 반면, 중국에 관한 소식은 보도횟수가 적고 인적 교류 소식도 줄어들었다. 물론 양국 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9월이나 10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8월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관계 경색을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이나 양국 간 수교 65주년이 되는 10월 6일에 기념행사에 관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올해 교류 규모가 축소될 개연성은 높다. 양국 수교 60주년이던 지난 2009년에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사회문화 행사가 활발했음을 감안하면 소위 ‘썩어지는 해’인 65주년에 사회문화 분야의 기념행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4년 북·중 간 교류의 규모가 감소하고 냉각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북·중 간 인적 교류가 경색될 것인가에 대해

I
II
III
IV
V
VI

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초기에 길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관계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측에서도 2014년 9월부터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와 리수용 외무상을 유럽 각국 및 유엔 무대에 파견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석주 비서는 2014년 9월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국가를 방문하여 인권외교를 펼쳤고 리수용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을 요청하였다. 또 북한이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한 것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10월 4일에는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가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중국을 초조하게 만들어 결국 중국의 적극적인 재개입을 촉발함으로써 북·중 간 교류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2. 네트워크

### 가. 인적 네트워크

북·중 간 인적 교류는 양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연간 50만 명 정도로 파악되지만 국경지대 형성된 시장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왕래하는 상인들을 포함하면 연간 약 200만 명 규모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변경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북·중 간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 간에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 즉 변경지역으로 간주되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공식허가를 받는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간단한 서류로 왕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간 사회문화의 인적 네트워크는 공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함과 동시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 간에 작동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는 양국 간에 형성된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비교적 근래에서야 국경이 획정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1860년대부터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중국이 국가를 수립하기 전 국공내전을 치르는 기간에 중국공산당의 동북항일연합군에 대거 참여하였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중 간 국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 피난처가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북한의 후방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현재 국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변 비행장도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 의해 건설되어 인민군의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족 사회와 북한과의 관계는 깊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1960년대에 국가 간의 공식적인 국경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나 탈냉전 이전에는 국경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았다. 탈냉전 이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동맹적 성격이 점차 좁아지고 무역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점차 국경 왕래도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조선족 자치주가 생겨났고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변경지역을 방문할 때 공식비자

<sup>42</sup> 김병로, “북한 체제의 형성·발전과 중국 조선족 사회,” 조한번 엮음, 『해외자료로 본 북한 체제의 형성과 발전 I』 (서울: 선인, 2006), pp. 239~264.

I
II
III
IV
V
VI

가 아닌 변경지역 방문증을 발급받아 북한을 왕래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경지역에서는 탈법적으로 왕래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의 특징은 우선 공식적 네트워크와 함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개략적 수치로 보면 공식 네트워크로 50만 명, 비공식 네트워크로 150만 명이 양국 간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왕래한 것까지 계산한 것이다. 비공식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중 국경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오가는 상인들로 경제적 목적으로 왕래하는 인원들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의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양국의 교류가 친인척 방문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지만 사실상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교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친인척 방문자들이 적은 규모의 물건들만 가지고 왕래하였는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트럭장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물품들을 싣고 왕래하기 때문에 경제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를 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식 네트워크로 분류되는 50만 명 가운데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왕래하는 경우가 20만 명, 중국인이 북한으로 왕래하는 경우가 24만 명이다. 공식적으로 분류되는 인원 중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취업과 비즈니스 목적이 70%를 차지하여 경제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친지 방문, 관광 등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인의 북한 방문의 경우도 장사와 사업 목적을 띤 경우가 많고 관광목적의 방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공식적 네트워크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 중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25%가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로 볼 수 있는데, 정치외교나 군사 분야 교류의 교류가 소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대다수는 문화예술, 학술교육, 체육, 언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친지 방문이다. 북한 주민 가운데 중국의 친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연간 300명으로 많지 않지만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쿼터를 정하여 중국 내 친지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순수한 친지 방문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목적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북한은 중국 내 친지 방문 허용을 주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300~500달러의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중국 방문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방문이 여러 측면에서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 10월에 옌지의 친척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친척 방문의 대가로 북한 당국에 북한돈 1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가 아닌 경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친지 방문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중국 내 친지 방문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000명과 1,500명으로 많은 수의 친지 방문을 허용하였으나 2007년부터 300~4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에는 ‘전사자·피살자’들의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에게 친지 방문을 위한 해외여행을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간 친지 방문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I
II
III
IV
V
VI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북한 내 친인척 방문도 변경지방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지 방문이 양국의 사회문화 인적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엔벤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가운데 70만 명 정도는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조선족의 절반인 100만 명 이상이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양국 간 친인척 방문을 적극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기간 재정을 보증할 친척의 초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북한 사람들 가운데 합법적으로 중국비자를 받아 2개월간 체류하는 사람들도 많다.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인은 2년에 1회 조선족 친척을 방문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원래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데, 비자발급 이후 정부에서 1개월을 묶어두고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개월 밖에 머무르지 못한다. 중국의 조선족은 북한의 친척 방문을 위해 1년에 1회 갈 수 있고, 1개월간 머물 수 있다. 양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제도적으로 방문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친지 방문이 적극 실시되면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친지 방문 다음으로 양적 규모가 크며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는 관광 교류다. 친지 방문과 교류는 북한과 중국 간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주의 배경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특수하게 진행되는 반면 관광 교류는 여행사의 관광상품으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인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보면 친인척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북한 주민과 중국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별적 네트워크로 진행된다. 북한 주민 중에서 중국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연간 4,000~5,000명 규모로 많은 편은 아니나 해외관광이 허

용되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만큼 숫자의 북한 주민이 관광과 레저 목적으로 중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은 특이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관광 교류에서도 양국 간의 특수성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연간 5~6만 명으로 많은 편이며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최근에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외관광에 대한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다 북한 관광상품이 활발하게 홍보되고 있고 자전거 관광이나 자가용 관광 등 관광 형태도 다양해져 중국인의 북한지역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친지 방문이나 관광 교류와는 달리 문화예술과 학술교육, 체육 등의 인적 교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문화예술 교류는 평양에서 매년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중국의 음악, 미술, 발레 등 예술계 인사들과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예술축전은 국제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국 대표단의 하나로 중국 예술인들이 참가하고 있고, 특히 조선족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큰 방향에서 양국의 교류를 주도하는 행위자는 외교부나 외무성, 문화부나 문화성 등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관료들이라 할 수 있어서 전문 예술인이나 학자의 참여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부처의 관료들이 각 분야의 교류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에 따라 예술인과 학자, 체육인 등 전문가들은 교류와 왕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교류의 전문성에서는 중심적 행위자이지만, 권력의 측면에서는 도구적이며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체육 분야나 보건의료, 학술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체육이나 교육, 의료 분야 역시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I
II
III
IV
V
VI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가 진행된다. 각 분야의 교류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체육인이나 교육자, 의사 등 전문인이지만 그 교류를 총괄하는 중심은 정부부처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는 관료들이다. 체육 분야는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북한이 국가적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과거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체육 교류를 주도하였고 작년 말 처형 이후에는 최룡해 비서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체육 교류를 총괄하고 있다. 교육 교류도 중국의 교육부장과 북한의 교육상이 양국이 타결한 교류합의서에 따라 양국의 교육자들이 실제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교류의 실질적인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그 분야를 담당하는 관료들에게 있으며, 교류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체육인, 교육자 등 그 분야의 전문인들은 실질적인 결정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단지 오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는 양국의 정부부처가 ‘집행계획서’를 교환하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대표단 파견과 방문사업을 진행한다. 공무를 띠며 진행되는 양국 간의 관료, 당료, 군인, 예술인, 유학생의 인적 교류는 양적 규모의 의미 이상으로 양국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들이다. 양국의 사회문화 교류에는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 중 이른바 ‘중국통’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중국과 두터운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 인사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된 북한 사람들의 교육 교류에서 전직 고위층의 자제로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실세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과 ‘사람과의 사업’을 중시하

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사회문화 교류는 다분히 인맥을 통해서 유지되고 관리된다. 이들의 영향력이나 중요도는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 교류에서는 중국의 베이징대학에서 유학하는 북한 학생들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한 중국 학생들 간에 깊은 유대를 갖고 학술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조 교류협정에 따라 베이징대와 베이징언어대에서 공부하는 수십 명의 북한 유학생과 중국에서 김일성종합대와 평양외국어대 등으로 파견한 유학생들은 유학을 마친 뒤 당·정 기관과 군부대에 배치돼 번역이나 자료수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외국대사관에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에서 연락관으로 일하기도 한다.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는 베이징대 영어과 출신으로 중국의 외교부장을 역임한 리자오싱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과 동창이다. 유학생 중에는 북한 내각 각 부·위원회에 속한 투자무역회사들이 위탁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도 귀국 후 해당기업에서 번역이나 대외업무에 종사한다. 유학생들은 출신성분이 좋은데다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폭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귀국 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까지 갖고 있어서 이들의 돈독한 인맥이 양국의 사회문화 인적 네트워크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 교류가 양국 간 정치외교 행사에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교예단 공연과 각종 전시회 개최를 위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는 순수 예술 교류라기보다는 외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사진전시회나 영화감상회 같은 문화행사는 광복절 등 북한의 국가적 행사절기나 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일 등 김정일, 김정은 등 지도자

I

II

III

IV

V

VI

들과 관련된 기념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화예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중국의 군부나 당, 외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북·중 간 사회문화 인적 교류에서 중국 내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동북 3성에 거주하는 250만 명의 조선족들은 문화예술과 학술교육, 체육, 친지 방문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대표하여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중국의 조선족은 대다수가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교류에 매우 유리하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정부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에서도 북한 고유의 노래와 춤, 민속놀이를 함께 공유하면서 전통문화 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은 민간레벨,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양국의 문화 교류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은 북·중 양국 간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과 유선전화 등을 통한 외부세계의 정보습득 통로가 차단되어 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조선족과 밀접한 인적 교류를 통해 외부세계의 변화 실상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세계와의 정보접촉은 차단되었지만 중국 조선족과의 인적 교류는 꾸준히 진행해 왔다. 중국 조선족 가정들이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위성TV를 통해 한국의 정치와 문화를 접하고 있고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가요를 담은 CD 또는 USB를 통해 시민사회 차원의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에서 핸드폰 사용자가 늘어남으로써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사

회문화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2014년 6월 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8년 12월 개통 이후 6년 만에 24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과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면접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63.6%(2008년), 57.1%(2009년), 76.7%(2011년), 90.0%(2012년), 88.0%(2013년), 85.9%(2014년)로 최근 2~3년 사이에 남한 문화의 접촉 속도가 80~90%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문화 교류의 속성상 근대적인 서구문화가 북한의 전통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국 조선족이 북한에 미치는 문화적 효과는 막대하다.

## 나. 조직 간 네트워크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은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 문화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조·중친선협회 등이며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 외교부, 문화부, 중·조우호협회 등이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당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서 북한의 당 국제부와 중국의 당 대외연락부가 조직 간 네트워크의 실질적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는 북·중 관계 업무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도 당 국제부에서 교류의 방향과 내용의 대략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당 국제부와 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측 카운터 파트너는 공산당 대외연락부이다.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당 대 당 외교를 관장하는 곳

I

II

III

IV

V

VI

이며 당 내에서 외교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북한의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이를 지휘하는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가 중국과의 교류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루이 부장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 간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당 대 당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의 지침이 정해지면 외무성과 외교부, 문화성과 문화부, 교육성과 교육부 등 북한과 중국의 정부부처들은 담당자들 간 상호 방문과 업무 교류를 진행한다. 문화예술과 교육학술, 체육 등 정부의 각 부처는 관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민간단체들을 동원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북한과 중국은 인적 왕래와 문화 교류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형식상 민간단체로 되어 있지만 산하기관들이 집행기구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 간에 결성되어 있는 조·중친선협회, 중·조우호협회 등의 민간단체를 동원하여 구체적인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민간단체로 활동하지만 노동당 국제부 산하기관으로 분류된다.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1956년 4월 3일 대외문화연락협회로 출발하여 1980년대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2014년 현재 김정숙 위원장과 20여 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실무적이며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내각의 문화성은 문화예술의 내용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한다.

양국의 대사관은 사회문화 교류의 최전선 기지로서 중요하다.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는 사진전과 미술전 등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적 왕래와 문화 교류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기관이다. 2010년부터 주중 북한대사를 맡고 있는 지재룡은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져 장성택 생존 시에는 중국 지도부와 장성택 부장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도맡아 왔었는데, 장성택의 숙

청으로 신변 거취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재룡은 1976년 청년동맹(당시 사로청) 위원장으로 발탁된 장성택의 심복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주북 중국대사관은 폐쇄된 북한을 외부세계와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역임한 류홍차이가 대사를 맡고 있다. 대사관의 활동으로 양국의 공식적인 사회문화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데 2014년에는 주북 중국대사관에 북한의 정권수립(9·9절) 66주년에 관한 중국과의 행사 소식이 빠져 있어서 양국관계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직 간 네트워크로 보면 북한의 조·중친선협회와 중국의 중·조우호협회가 양국의 전반적 교류를 촉진하는 민간단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조·중친선협회와 중·조우호협회는 1958년 9월 중국과의 친선 강화를 위해 조직된 북한의 민간단체로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조·중 간의 우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조·중친선협회는 두 나라 간의 특수한 우호관계에 힘입어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협회결성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인적 교류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8년 9월 16일에는 50주년 기념행사와 연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최창식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친선협회 대표단과 중·조우호협회 우동허(武東和) 회장, 중국 주재 북한의 최진수 특명전권대사를 위시한 양국의 문화계 인사들이 교류하였다. 조·중친선협회는 특히 1961년 7월에 맺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sup>43</sup> 북한의 조·중친선협회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지도하에 이러한 정치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up>43</sup> 조·중친선협회 중앙위 위원장은 강하국 보건상이 맡고 있다.



표 V-1 북·중 문화 교류 조직 네트워크

구분		북한	중국
정부	당	국제부	대외연락부
	내각	외무성, 문화성, 교육성, 보건성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위생부
		국립민족예술단, 국가관광총국	-
	국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국가체육지도총국
	산하기관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민간	친선조직	조·중친선협회	중·조우호협회
		조선예술 교류협회	-
	교민조직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7개지구)
			재중조선인예술단, 지린성엔벵가무단, 선양시아리랑예술단
	학술·교육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대 등 10개교	베이징대학, 베이징외국어대학, 상하이외국어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엔벵대학 등 7개교
		창덕학교	지린 육문중학교
	예술	만수대에술단, 꽃파는 처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조선민족가무단, 국립교향악단, 국립민족예술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금성학원예술단	동방가무단, 상하이발레무용단, 상하이교향악단, 중국교향악단,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가무단
		언론출판	조선기자동맹,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사
	관광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년여행사, 칠보산여행사	고려여행사, 서안국제여행사, 세일국제여행사, 엔벵천우국제여행사, 국제여행집단상하이유한공사, 다롄부려화국제여행사유한공사, 엔벵아리랑여행사
	사회단체	조선민주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문화예술 교류에서는 중국의 문화부가 매년 빠짐없이 정부 문화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며, 조선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문화성에서도 매년 정부대표단과 문화일꾼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 북한의 예술단체로는 만수대예술단, 꽃파는 처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조선민족가무단, 국립교향악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등이 중국과의 문화예술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동방가무단, 상하이발레무용단, 상하이교향악단, 중국교향악단,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가무단 등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만수대예술극장이라는 전용극장을 갖추고 있을 만큼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로 단원의 규모가 600~700명 정도로 매우 크다.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되어 1969년 9월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되었는데 북한의 정권창건일(9·9절)과 당창건일(10·10절) 같은 기념일에 국가행사 공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 새롭게 창립된 모란봉악단은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북한 미술가들이 중국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2012년 7월 16일, 북한 문화성과 베이징 경합성투자유한공사는 베이징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지구인 ‘798예술구’에서 3층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조선민예창작중심’ 개관식을 가졌다. 리순철 문화성 국장과 조선민예창작중심을 운영할 전옥순 베이징경합성투자유한공사 사장, 김원일 문화성 처장, 최명길 문화성 민예연합상사 처장 등 북한 인사와 장진궐(張振國) 재정부 농업사장, 명춘(孟春) 국무원 경제발전연구중심 거시부장, 장귀화(張國華) 798예술구 관리위 주임 등 중국 인사들이 참석하여 미술가

I
II
III
IV
V
VI

교류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는 798예술구 안에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화랑만 있었으나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양국 미술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북·중 양국 간 문화 교류는 북한예술단의 중국 현지 공연에 이어 중국 내 문화예술인 공동양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2014년 1월 북한의 피바다가극단이 새 가극 ‘천지신화’를 중국 지린성 옌벤에서 상설 공연을 한데 이어 2014년 2월 27일에는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 문화관 내에 ‘중·조선예술인재 양성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양국 문화예술 교류가 다변화하고 있다. 룡징시는 북한의 내각 문화성 산하 대외예술 교류기관인 조선예술 교류협회와 협력하여 성악, 피아노, 가야금, 춤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매주 두 차례 이상 정기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북·중 양측은 앞으로 10년 동안 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sup>44</sup>

북·중 사회문화 조직 간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조선족의 역할은 매우 크며 북한은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중국 조선족과의 교류를 실무적으로 담당한다. 북한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해외동포들과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사업을 담당하며 합영, 합작, 교역 등 경제사업도 주선하는 기관이다. 중국에서는 단둥과 옌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중심을 이루는데 ‘재중조선인총연합회’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는 1991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로 선양의 본부 아래 7개 지구(랴오닝, 옌벤, 지린, 자무쓰(佳木斯), 무단강(牧丹江), 하얼빈, 중난(中南))에 산하협회를 두고 있다.<sup>45</sup> 현재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

<sup>44</sup> 『연합뉴스』, 2014년 3월 11일.

<sup>45</sup> 1991년에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가 1998년에 재중조선인

장성 등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약 7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는 매년 2·16행사와 4·15친선예술축전, 9월 북한 정권수립일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동포들의 문화행사를 주관한다. 조선족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재중조선인예술단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재중조선인 예술단은 2005년과 2007년, 2010년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2·16행사에만 참여하였다. 각 지역 예술단체로는 중국 지린성 엔벤가무단, 선양시 아리랑예술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중국 거주 동포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학술교육 분야의 교류는 중국의 교육부장과 북한의 교육상이 양국 간 타결한 교류합의서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교육 대표단 300여 개를 상호 파견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30여 개의 대표단이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 간 교류로는 중국 베이징대학, 베이징외국어대학 등 12개 대학과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김형직사범대학 등 7개 대학들이 합의서를 채택하고 교육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대학 외에 지린대학, 엔벤대학 등 동북 3성의 대학들도 청진사범대 등 북한의 지방대학들과 유학생 파견, 학술회의 등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엔벤대학 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통신과정으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다.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랴오닝성사회과학원 등 중국 동북 3성의 연구기관들이 상호 방문과 학술 연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와 국제문제연구소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기관 간 교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또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 배

총연합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경이 되고 있는 지린의 육문중학교가 매년 정례적으로 북한의 창덕학교를 방문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북한의 금성학원(원장: 오정훈) 대표단은 북·중 청년교류를 위해 2013년 1월 26일 라오닝성 단둥시를 방문하여 중국 학생들과 합동 공연을 진행하였다. 예술전문학교인 금성학원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가 졸업한 학교로 196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의 학술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체육 부문에서는 중국의 국가체육지도총국과 북한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양국 체육 교류의 '집행계획서'에 따라 매년 수십 개의 체육 대표단 교류를 진행한다. 이러한 교류 방식은 체육 분야뿐 아니라 학술교육과 보건의료 분야, 법률과 언론출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각 분야에서 매년 혹은 2~3년마다 집행계획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법률단체, 언론출판기관이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중 간 사회문화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조직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 당이 행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양국의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와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주관하여 내각의 행정 각 부처와 산하기관, 민간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 각 부처가 교류 계획을 수립하면 산하기관과 민간단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사회문화 인적 교류가 진행된다. 문화성과 교육성,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등 북한의 행정 각 부처와 문화부, 교육부, 국가체육지도총국과 같은 중국의 정부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없이는 양국 간 의미 있는 교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과 정부의 강력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술단체나 학술교육기관, 체육단체가 단순히 동원되는 성격만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담당하는 북한과 중국 관료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인간적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단순히 조직 대 조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성된 끈끈한 인맥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 모두 공식 조직보다는 사람과의 사업과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정치문화가 작동하고 있어서 인간적 친분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교류의 동력을 지속할 수 없다. 물론 시민사회의 존재감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조직 간 네트워크가 인적 네트워크를 압도하고 있지만 조직 간 네트워크만으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 인적 교류의 특징은 조직 네트워크 안에서 공식적 지위가 활용되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 친분과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조직이라는 형식논리만으로는 교류를 유지하기 힘들다.

양국 간 교류 네트워크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문화 분야의 순수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 정부는 각 부처가 마련하는 ‘집행계획서’를 교환하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방문사업을 진행한다. 북한의 문화성과 교육부, 중국의 문화부와 교육성 등 사회문화와 관련한 양국 정부부처의 담당자들 간 상호 방문과 관련 업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하다 보니 관료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와 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는 전문가나 당사자들이 교류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문화 단체들을 관장하는 관료들 간의 교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관련부처의 부부장이나 과장을 대표단으로 하

I
II
III
IV
V
VI

여 상호 방문을 하는 형태가 양국 교류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패턴이다. 공무를 띠며 진행되는 양국의 관료와 당료 행위자가 교류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전문인과 당사자는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문화 분야 관료들 간의 교류가 그들만의 교류로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인과 당사자들 간의 교류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가 정치행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순수한 예술 교류나 체육 교류, 학술 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수립, 당창건 등 양국의 국가기념일이나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과 같은 정치외교 행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다보니 문화예술단체나 교육, 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행위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양국 간 관계개선과 친선도모라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압도되어 순수 사회문화의 내용을 교류하고 학습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양국 간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순수 사회문화 교류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또 정부 주도로 사회문화 교류를 진행하다보니 관련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교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 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관련 민간 행위자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북·중 간의 전체적인 인적 교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010년부터 연간 15~20%씩 가파르게 늘고 있고 중국 쪽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관광 때문에 최근 3년 사이에 2.5배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데는 통상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인적 교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요즘 북·중 간 정치적 관계는 매우 불편하고, 그래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인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것인가, 굳이 교류 분야를 몇 가지로 대별한다면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같을까, 아니면 다른 특징을 보일 정도로 다른가 하는 의문 등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북·중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2003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 466회 중 428회가 이루어졌다. 연평균 47.6회이다. 그러나 김정은-시진핑 시대인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양국 간 교류는 총 38회에 그쳐 연평균 15회 정도이다. 세간의 평가처럼 급감했고 이로써 북·중 간의 인적 교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는 제1, 2차 북핵 실험과 남·북한의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김정일의 사망과 2013년 이후 김정은-시진핑 시대의 북·중관계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sup>46</sup> 무엇보다도 2013년 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북·중관계를 파

I
II
III
IV
V
VI

행으로 몰아넣은 주된 이유이며 그 결과 2014년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북·중관계 발전과 교류의 기본 원칙은 2001년 9월 장쩌민이 평양 방문에서 제시한 ‘16자 원칙(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북·중관계를 이끌어 왔으며,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전략소통 강화, 경제무역 심화, 인문교류 확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간의 교류 원칙들은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유명무실’화 된 듯하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66주년을 맞아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로 보낸 축전에서 중국은 더 이상 대북관계의 기본원칙인 ‘16자 원칙(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된 북·중관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라는 과거의 틀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보다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한편 전략적 부담으로 변하고 있는 북한에게 가능한 연루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중 간의 이와 같은 갈등 및 인적 교류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인적 교류 단절의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김정은 등장 이

---

<sup>46</sup> 박병광, “김정은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박병광,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pp. 14~26 참조.

후 북·중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와 사례들, 즉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김정은 방중의 미실현,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 금지설 등은 북·중관계의 긴장과 갈등뿐 아니라 이의 장기화에 따라 적어도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인적 교류의 최소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북·중관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북·중 간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에게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개입정책의 강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미래가 혈맹을 토대로 한 과거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양국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Ⅱ장에서 본 바대로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뜻하지 않게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북·중 간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군사 분야는 그렇지 못했다. 군사 분야의 교류가 줄곧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북·중 간의 정치외교 분야에서 이뤄진 인적 교류의 횟수는 총 466회에 달한 반면, 군사 분야의 교류는 총 65회에 그쳤다. 군사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9년(7회)과 2010년(13회)인데, 이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해(2009년 81회, 2010년 73회)와 일치한다.

2003년 이후 북·중 간 군 인적 교류는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4~5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과 천안함 폭침(2010.3), 연평

I
II
III
IV
V
VI

도 포격(2010.11)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대응하여 북·중관계의 강화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연도는 교류 횟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어쩌면 군사 분야에서 북·중 간 친선우호관계를 의례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 횟수가 대략 4~5회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와 김정은-시진핑 시기를 비교하면 북·중 간 군사 분야의 교류 역시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자 시기 양국 간의 군사 분야 교류 횟수는 연평균 6회였지만 후자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2014년 현재까지 군사 분야의 교류는 한 차례도 없다.

한편 북·중 간 정치외교적 관계와 상관없이 군사 분야에서 그동안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던 고리는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10월 25일)의 기념행사이다. 특히 후자는 양국 간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확인하는 정치적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념일 행사는 중국 측이 보다 주도해 왔다.

하지만 향후 김정은-시진핑 시기의 군사 교류는 현재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중국이 더욱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보다 조심스런 평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 조정의 진위 여부를 논외로 한다면 김정은-시진핑 시기의 양국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그것이 정치외교 분야뿐 아니라 군사 분야의 교류에도 그대로 반영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경제 분야에서의 북·중 간 인적 교류는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에서 보듯 북·중 간 경제활동을 위한 상호 방문의 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 간 교류의 성격을 띤 공

적 성격의 교류는 그렇지 않다. 정치외교 분야나 사회문화 분야에 비해 교류가 빈번하지도 않고 주목할 만한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수력 발전이사회나 하천운항위원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나 매년 개최하는 각종 전람회를 통한 접촉을 제외한 교류는 매우 간헐적이고 의미가 크지도 않다.

공적 성격의 연도별 교류 횟수는 2003년 8회, 2004년 10회, 2005년 25회, 2006년 17회, 2007년 11회, 2008년 13회, 2009년 12회, 2010년 14회, 2011년 11회, 2012년 17회, 2013년 8회, 2014년 상반기까지 3회로서 총 149회이다. 북한 쪽에서 중국으로 간 것이 65회이고 중국 측에서 북한을 찾은 것이 84회이다.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의 교류 횟수는 연평균 13.4회이고 김정은-시진핑 시기는 11.2회이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교류 횟수로만 보면 소폭 감소했으나 중국의 ‘투자조선 중·조경제무역협작망’이라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교류 횟수를 첨가하면 2012, 2013년도 양국 교류 횟수는 다른 연도의 평균치와 별반 차이가 없다. 북한 경제가 시기별로 다소 부침이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경제관계가 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있는데 그것은 2013년부터 경제 관련 정부대표단의 교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매년 북·중 간에는 몇 차례 정부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데 2013년과 2014년 상반기까지 그런 방문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회의만 개최되고 다른 연도에 간혹 있었던 정부 조직 간 교류도 일체 없다. 이런 흐름은 2014년 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불편해진 북·중관계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고 최근 북·중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로동신문』에 보도된 교류로 볼 때 북한 측 인사든 중국 측 인사든 적어도 경제 분야의 교류에서는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가 발견되지 않는다. 전부가 직책에 따른 교류일 뿐 직책과 무관한 교류는 없다. 단 비교적 빈번하고 지속적인 조직 간 상호 방문이나 정례적인 교류는 발견된다. 정부 경제무역대표단의 교환,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서의 중국 기업과의 교류, 수력발전회사 이사회를 통한 만남, 과학기술 부문의 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에서의 교류,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이의 상호 교류가 그것이다. 정기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 해결을 위한 것과 북한 상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 간헐적으로 북한 민용항공총국과 중국 민용항공총국, 북한 세관총국과 중국 해관총서, 북한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나 개발은행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 간 교류에서도 조직의 소관 업무나 기능에 따라 직책상 하게 되는 것일 뿐 주목할 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없다.

사회문화 분야 인적 교류는 지난 10년간 양국 간 정치적 사건과 외교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2003년 이후 증가하던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북핵문제와 제1차 핵실험 정국 조성으로 2005~2006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한 관여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하반기(7~12월)에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왕래가 유례없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사건에 영향을 받아 교류 횟수도 68회로 대폭 감소하였고 장성택 사건이 가시화된 시점인 10~12월에는 아예 인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 2014년에 들어서도 양국 간 교류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중요한 국가 기념일에도 사회문화 교류가 거의 없어서 기존의 북·중 사회문화 네트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문화예술, 교육, 체육, 관광, 보건 등 다면적 네트워크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교류에는 정부 인사뿐 아니라 민간인도 넓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분야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문화예술과 학술교육, 체육 등의 인적 교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조선족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조선족의 역할이 크다. 친지 방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제한적이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족과 친척이라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에 매우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관광 교류는 교류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광범위하며 개별적으로 흩어져 매우 약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최근에 매우 급증하고 있어서 향후 양국 사회문화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다. 친지 방문이나 관광 교류는 중국 쪽에서 북한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북한 주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비대칭적 교류로 진행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해외여행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북한의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양국의 교류를 큰 방향에서 주도하는 네트워크 행위자는 노동당과 공산당의 간부나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외교부나 외무성, 문화부나 문화성 등 정부부처의 관료들이 각 분야의 교류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에 따라 예술인과 학자, 체육인 등 전문가들은 교류와 왕래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I
II
III
IV
V
VI



설립한 예술단과 체육단체,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들의 주도하에 조·중 친선협회나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같은 친선조직과 교민단체가 사회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술교육기관과 예술단, 사회단체가 각 전문분야의 교류협력을 담당한다. 따라서 북·중 사회문화 교류 인적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당과 내각의 문화 관련 부서들, 정부 산하기관, 양국의 친선조직과 교민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예술인, 학자, 체육인, 유학생, 조선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양국의 사회문화 인적 교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유학생과 조선족의 역할이다. 양국은 정책적으로 유학생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부를 마친 후에는 북한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인적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국의 각 전문 영역에서 터득한 어학과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본국에 돌아간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며 돈독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유학생의 규모는 중국 유학생 120여 명, 북한 유학생 870여 명으로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인원으로 보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엘리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양국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의 골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학생 교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 사회문화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선족 또한 북한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로 존재하며 정치, 군사, 문화의 공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변경무역과 친인척 방문을 통해 사회네트워크의 친밀감과 밀도를 높이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82만 조선족 가운데 70만 명 정도는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만 이상은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조선족 친인척 관계 네트워크는 향후 양국 간의 왕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에서 동북 3성의 역할과 조선족의 역할을 유념해 보아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조선족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남·북한 교류에서 중국의 조선족의 촉매역할, 매개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선족이 북한과의 인적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영향이 막대하여 조선족 사회의 변화는 곧바로 북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족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북·중 양국 간의 교류 네트워크가 다층화 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행위자 외에 중국에 진출한 한인이나 화교, 탈북자 등 제3행위자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무역활동과 해외 근로자, 친척 방문자, 유학생, 외교관, 남·북 간 인적·물적 왕래, 금강산 관광, 탈북자 등의 휴먼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문화접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가 증가하면서 조선족과는 별도로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북·중 교류에서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로 성장하였다. 한인 사회를 통해 조선족 사회의 의식이 바뀌고 그것이 북한과 교류하는 엘리트와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또한 제한적이긴 하나 북한 내 가족과 교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 네트워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류의 속도와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중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더 확대될 것이고 교류 네트워크는 더 복합성을 띠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사회문화의 인적 네트워크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고 문화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북·중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 가능성과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정책

I
II
III
IV
V
VI

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네트워크 각각의 집합적 연결점들이 북한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는 북한 개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정보통신 발달의 속도와 중국의 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 동안 북한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부터 사회 교류와 문화접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 네트워크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진전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촉과 북한 사회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 간에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한의 문화접촉과 교류를 증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현대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간에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해온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북·중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회자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경색이 정상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과거의 정치군사 중심의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적어도 인적 교류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 특히 김정은-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모든 분야의 인적 교류에서 보이는 양국의 간극은 분명하고 이것이 향후 더 농후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간극을 활용할 수 있는 대중, 대북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신중호 외.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3.
- 이중운·홍이경.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2013.
- 정덕구 외. 『기रो에 선 북중관계』. 서울: 중앙북스, 2013.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 加藤隆三木 편. 『日中經濟·人的交流年表』. 東京: 創英社, 2012.

## 2. 논문

- 김병로. “북한 체제의 형성·발전과 중국 조선족 사회.” 조한범 엮음. 『해외 자료로 본 북한 체제의 형성과 발전 I』. 서울: 선인, 2006.
- 박병광. “김정은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No. 2012-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 \_\_\_\_\_.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 북한경제 리뷰』. 2013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성백용·양지연. “2013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Vol. 13, No. 9 (한국무역협회), 2014.

이원근. “북한·중국의 경제관계 실태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20권 3호 (한국정치학회), 2013.

전승학. “무역회사들이 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하여 상품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13년 제1호 (루계제158호). 평양: 과학백과사, 2013.

### 3. 기타자료

『노컷뉴스』.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한국일보』.

주 평양 중국대사관. <<http://kp.china-embassy.org>>.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주간북한동향』.

중국 연변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6인 인터뷰.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상무국 및 통상구 사무실 관계자 면담.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KOTRA 동북아팀/청두 한국무역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사천성 관계자 면담. <<http://www.globalwindow.org>>.

International Crisis Group. *The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n North Korea*. 2009.

中國商務部·中國國家統計局·中國國家外匯管理局.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2002~2012 각 연도.

中國國家旅遊局統計. <<http://www.cnta.gov.cn/html/rjy/index.html>>.

投資朝鮮中朝經貿合作网. <[www.idprkorea.com](http://www.idprkorea.com)>.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중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경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소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창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상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 Study Series

비매출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기 타	비매품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입금일자		
		입금자 (가입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기입)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		E-Mail	
	핸드폰		FAX	
Mailing Service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E-Mail: books@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통일연구원

[www.kinu.or.kr](http://www.kinu.or.kr)



ISBN 978-89-8479-769-7